석사학위논문

기독교 창작무용
「바람의 언덕」에 관한 연구

2025년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무 용 학 과

기 독 교 무 용 전 공

한 행 선

석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박영애

기독교 창작무용
「바람의 언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ristian Creative Dance
「The Hill of Wind」

2024년 12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무 용 학 과

기 독 교 무 용 전 공

한 행 선

석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박영애

기독교 창작무용
「바람의 언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ristian Creative Dance
「The Hill of Wind」

위 논문을 무용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4년 12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무 용 학 과

기 독 교 무 용 전 공

한 행 선

한행선의 무용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4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김 남 용 (인)

심 사 위 원 안 신 희 (인)

심 사 위 원 박 영 애 (인)

국 문 초 록

기독교 창작무용 「바람의 언덕」에 관한 연구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무 용 학 과
기 독 교 무 용 전 공
한 행 선

본 연구는 상실을 주제로 한 기독교 창작무용, 「바람의 언덕」에 관한 작품 분석이다. 작품의 의도와 내용, 작품의 구조와 형식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인생에서의 상실 경험을 이해하고 기독교적 관점에서 회복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연구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작품은 삶에서 피해 갈 수 없는 상실이 인생에서 존재하는 필연적 요소라면 '상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일까?'라는 생각에서 비롯되었으며 주제와 내용을 구상하였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를 통해 다양한 상실을 경험하게 된다. 마치 방향을 예측할 수 없는 변화무쌍한 바람을 닮은 상실 경험을 '바람'이라는 은유적 소재로 작품을 통해 표현하였다.

현대인들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양한 상실을 경험하고 있으며 긍정적 회복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삶에 여러 요인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게 된다. 상실 경험은 개인의 인지구조나 내적 이미지에 영향을 줌으로 상실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한다.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은 일

반적으로 현실을 부정하려는 태도를 보이며 슬픔으로 인한 상실의 고통을 겪는다. 다음 단계로 원망과 분노의 감정적 변화를 거치며 상실을 수용하는 단계인 타협을 시도하게 되는 복합적인 감정변화의 과정을 겪으며 상실로부터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된다.

본 연구는 작품을 통해 기독교적 관점에서 인생에 찾아온 상실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말하고자 한다. 상실이란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사도바울이 고백처럼 우리는 결코 버린 바 되거나 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몸에 지닌 자라는 긍정적 시각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긍심을 가지는 것이다. 그리고 상실의 감정에서 벗어나 영적 시야를 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는 마음 자세를 갖는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고난으로 인한 하나님의 뜻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인식의 전환을 이루어 가는 시간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현대 사회도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유형의 상실에 대한 심리적, 정신적 충격을 완화하고 극복하기 위하여 제시하는 다양한 방법 중 마음의 근력을 키우는 감사 성향 훈련을 추천하고 있다. '감사하기'는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하며 정서 조절에 놀라운 힘이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인들은 신앙 안에서 매일의 감사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으니 상실로부터의 회복 능력은 긍정적이며 탁월하다고 볼 수 있다. 상실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상실에 대한 유연한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소망의 하나님을 감사로 바라보면 상실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연구자는 작품을 통해 기독교적 관점에서 상실로부터의 회복을 조명하였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문제를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상황에 개입하여 상실을 어떻게 다루시며 승리케 하시는지 표현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치유하고 회복되는 소망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작품「바람의 언덕」은 2024년 11월 18일 PM 7:00 양재 M 극장에서 공연하였다. 연구 방법은 작품을 촬영한 공연영상과 사진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하며, 상실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문헌 연구를 중점으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작품은 총 4장 구성으로 상실과 회복의 단계로 상실 경험, 상실 수용, 상실로부터의 회복이다.

각 장의 주제를 살펴보면 1장은 ‘상실의 바람’은 인생에 찾아온 상실에 대한 상실의 슬픔과 분노를, 2장 ‘탄식의 바람’에서는 고통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앞에 슬픔을 토로하며 긍휼을 구하는 모습으로 시편 102편 탄원 시로 표현하였다. 3장 ‘성령의 바람’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감당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는 위로의 성령을, 4장 ‘소망의 바람’은 믿음의 눈이 열리며 주님 앞에 삶의 멍에를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으로 회복되는 메시지를 표현했다. 연구를 통하여 상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므로 상실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주요어】 기독교 창작무용, 상실, 상실로부터의 회복, 감사, 스트레스.

목 차

Ⅰ. 서 론 ····· 1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1.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 3

Ⅱ. 상실에 대한 이해 ····· 5

2.1 상실의 개념 및 유형 ····· 5
2.1.1 상실의 개념 ····· 5
2.1.2 상실의 유형 ····· 6
2.2 상실로부터의 회복단계 ····· 9
2.2.1 상실 경험 ····· 9
2.2.2 상실 수용 ····· 10
2.2.3 상실로부터의 회복 ····· 11
2.3 성경을 통해 본 상실과 회복 ····· 13
2.3.1 요셉의 상실과 회복 ····· 16
2.3.2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상실과 회복 ····· 18

Ⅲ. 작품 개요 ····· 20

3.1 안무 의도 및 작품 내용 ····· 20
3.1.1 안무 의도 ····· 20
3.1.2 작품 내용 ····· 22
3.2 작품의 구조 및 형식 ····· 23
3.3 작품의 구성요소 ····· 25
3.3.1 움직임 ····· 25
3.3.2 오브제 ····· 27
3.3.3 음악 ····· 29

3.3.4 의상 ····· 31
3.3.5 조명 ····· 35
3.3.6 무대 공간 사용 ····· 37

Ⅳ. 작품 분석 ····· 39

4.1 제1장 : 상실의 바람 ····· 39
4.1.1 주제 및 내용 ····· 39
4.1.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 40
4.1.3 음악 및 오브제 ····· 45
4.1.4 무대장치 및 조명 ····· 46
4.2 제2장 : 탄식의 바람 ····· 47
4.2.1 주제 및 내용 ····· 47
4.2.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 47
4.2.3 음악 및 오브제 ····· 50
4.2.4 무대장치 및 조명 ····· 50
4.3 제3장 : 성령의 바람 ····· 51
4.3.1 주제 및 내용 ····· 51
4.3.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 52
4.3.3 음악 및 오브제 ····· 55
4.3.4 무대장치 및 조명 ····· 56
4.4 제4장 : 소망의 바람 ····· 57
4.4.1 주제 및 내용 ····· 57
4.4.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 58
4.4.3 음악 및 오브제 ····· 62
4.4.4 무대장치 및 조명 ····· 63

Ⅴ. 결 론 ····· 65

참 고 문 헌 ····· 68

부 록 ····· 70

ABSTRACT ····· 73

표 목 차

[표 3-1] 작품의 구조 ····· 24
[표 3-2] 음악 ····· 30
[표 3-3] 무용 작품에서 색상의 상징적 의미 ····· 34
[표 3-4] 색채조명의 이미지 및 감정 표현 ····· 35
[표 3-5] 프로시니엄 무대(Proscenium Arch Stage) 구역 구분 ····· 37

사 진 목 차

[사진 3-1] 무용수 1 의상(1장, 2장, 3장) ····· 32
[사진 3-2] 무용수 2 의상····· 33
[사진 3-3] 무용수 1 의상(4장)····· 34
[사진 4-1] 오브제. 4M 긴 천····· 45
[사진 4-2] 조명 1 ····· 46
[사진 4-3] 조명 2 ····· 47
[사진 4-4] 조명 3 ····· 51
[사진 4-5] 오브제. 깃털 핀····· 56
[사진 4-6] 조명 4 ····· 57
[사진 4-7] 오브제. 흰 꽃핀····· 63
[사진 4-8] 조명 5 ····· 64

그 림 목 차

[그림 3-1] 작품에서의 무대 사용 ····· 38
[그림 4-1] 움직임 1 ····· 41
[그림 4-2] 움직임 2 ····· 42
[그림 4-3] 움직임 3····· 43
[그림 4-4] 움직임 4 ····· 44
[그림 4-5] 움직임 5 ····· 48
[그림 4-6] 움직임 6 ····· 49
[그림 4-7] 움직임 7 ····· 53
[그림 4-8] 움직임 8····· 54
[그림 4-9] 움직임 9 ····· 55
[그림 4-10] 움직임 10 ····· 58
[그림 4-11] 움직임 11····· 59
[그림 4-12] 움직임 12 ····· 60
[그림 4-13] 움직임 13····· 61

Ⅰ.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쇼펜하우어와 니체의 인생철학에 의하면 삶은 상실의 연속이며 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서 존재하는 필연적 요소라고 한다.[1]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생존을 위해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관계를 이루며 사회 속에서 적응하며 살아야만 한다. 다양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사람이나 사건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크고 작은 상실을 경험하며 아프고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운 감정을 갖게 된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삶이 안락하고 걱정과 근심이 없는 평안함을 추구하지만, 상실로 인한 괴로움들은 삶에 여러 변화를 겪게 하고 불안정함은 물론 삶의 방향성 또한 잃어버리게 된다.

상실(loss)이란 삶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어떤 대상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 더는 가까이할 수 없게 되거나 그 대상과 더 이상 가치 있는 삶의 목적을 이루어 갈 수 없게 되는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상황을 말한다. 상실로 인한 슬픔은 인간의 삶에서 누구나 한번은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모든 문화와 사회를 막론하고 공통으로 나타나며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치유되기도 하지만 오래도록 아픔의 흔적으로 남아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상실에 대한 견해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구분되고 있다. 이는 상실 경험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실 경험은 개인의 외부사건이나 관계 경험에서 형성된 인지구조와 심리정서의 바탕이 되는 내적 이미지에 강한 영향을 주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 상실 충격으로 말미암아 멘탈이 붕괴되고 이로 인한 슬픔과 절망, 분노와 좌절, 원망 등의 다양한 감정들이 강박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상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감정의 정화과정은 삶의 의미를 재구성하게 되고 상실의 아픔을 통해 더 성숙하고 성장 되는 건강한 회복을 이룰 수 있다. 이는 상실을

1) 뉴필로소퍼 편집부. (2024). 『뉴필로소퍼 26호』. 서울 : 바다출판사, p.15.

대처하는 자세와 태도에 따라 삶의 품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도전은 삶이 이해의 폭을 넓혀 소망으로 나아가게 된다.

본 연구는 이처럼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상실이라면 상실을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인생은 마치 예측할 수 없는 바람을 닮았다. 인생의 매 순간은 변화무쌍한 바람처럼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가치 있다고 여기는 무언가를 잃어버린 상실의 바람이 삶을 에워싸도 인생의 여정은 계속된다. 상실을 경험하면 정서적 고통은 깊어지고 불안은 더 가중되어만 간다. '왜? 나야?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거야?'라며 분노로 표출된다. 현실을 부정하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다가 자신에게 비난의 화살을 겨누기도 하는 등 감정적으로 혼란한 상태에 머물게 된다. 인생에 찾아온 상실의 시련은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질 것만 같은 두려움으로 엄습해 오고 벼랑 끝에 홀로 서 있는 듯한 고독과 외로움의 감정을 불러오며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상실로 인한 슬픔은 영혼의 밤을 지나는 것 같고 자신의 아픔을 묵과하고 바라만 보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들기도 한다. 이런 복합적 감정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예상하지 못한 감정일 수 있다. 이는 하나님과 다른 대상을 향해 원망하고 분노함으로써 불안한 환경과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영적 간절함이 발로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므로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와 연합을 통해 영과 혼과 육체가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가장 온전해지는 인간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러므로 상실의 슬픔과 분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듯한 영적 두려움과 불안함 등의 수반된 고통에서 야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2)]

따라서 인간의 상실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대면해야 가능하다. 상실 경험자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문제를 풀어나가며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체험해야 한다.[3)] 상실은 삶의 문제 이면에 고난을 통한 영적 전투이므로 고난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

2) 김준. (2014). "불안과 기독교 상담:성경적 인지행동 접근". 『성경과 신학』. 71 : 101-103.

3) 오오현. (2011). "욥의 상실에 대한 목회상담적 소고". 『신학논단』. 63 : 169.

믿고 하나님이 고난을 다루실 수 있도록 내어 드려야 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먼저 다가오신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서도 언제나 함께하셨음을 깨닫는 것이다. 그러면 상실의 슬픔 속에 잠식되어 있던 연약함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은 삶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치유 받을 수 있게 된다.

상실의 시간은 인생에서 피해 갈 수 없고 누구에게나 아픈 기억이겠지만 슬픔 때문에 웅크린 채로 머물러 있다면 인생은 제자리걸음일 것이다. 그러나 상실에 대한 유연한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믿음 안에서 상실을 바라보면 많은 변화가 있게 된다. 상실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안에서 슬픔과 고통의 상황들을 헤쳐 나감으로 성장하고 더 단단해지는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이 작품을 통해 이야기하려 하였다. 본 연구는 상실을 주제로 한 기독교 예술 창작무용 「바람의 언덕」에 관한 작품 분석이다. 연구자는 이 작품을 통하여 인생에서의 상실 경험을 깊이 이해하고 기독교적 관점에서 삶의 의미와 해답을 찾는 회복과정을 기독교 무용을 통하여 표현하므로 복음적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1.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2024년 11월 18일 PM 7:00 양재 M 극장에서 공연된 상실을 주제로 한 기독교 예술 창작무용 「바람의 언덕」에 관한 작품 분석 연구이다. 연구 방법은 창작 작품을 촬영한 공연영상과 사진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상실에 대한 이해를 위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작품의 의도와 내용, 작품의 구조와 형식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 작품이 이론적 배경을 이해하기 위하여 단행본과 학위논문, 학술지, 성서, 인터넷 자료 등을 통한 문헌연구를 중점으로 살펴보았다.

연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Ⅱ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상실을 이해하기 위한 상실의 개념 및 유형을 알아보고 상실 경험을 통해 나타나는 고통의 깊이와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한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상실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인물들의 상실 경험을 고찰하고 성경을 통해 본 상실 회복에 대해 알아보았다.

Ⅲ장은 작품 개요로 기독교 창작무용 「바람의 언덕」에서 표현된 안무 의도와 작품 내용, 작품의 형식 및 구조와 구성요소를 설명하였다. 작품의 움직임은 현대 무용과 한국 무용을 토대로 구성하였으며, 상실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오브제를 사용하여 감정과 내용이 전달되도록 하였다. 공연을 토대로 작품의 음악과 의상 그리고 조명과 무대 공간 사용을 서술하였다.

Ⅳ장의 작품 분석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별 요약은 다음과 같다. 상실과 회복의 단계로 상실 경험, 상실 수용, 상실 회복으로 구성하였으며 주제 및 내용, 움직임 구성 및 표현과 음악과 오브제 그리고 무대장치 및 조명을 설명하였다. 1장 상실의 바람은 인생에 예기치 않게 찾아온 상실을 통해 상실의 슬픔과 분노를, 2장 탄식의 바람에서는 고통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앞에 슬픔을 토로하며 긍휼을 구하는 모습으로 시편 102편 탄원 시로 표현하였다. 3장 성령의 바람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감당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는 위로의 성령을, 4장 소망의 바람은 믿음의 눈이 열리며 주님 앞에 삶의 멍에를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으로 회복됨을 표현하였다.

Ⅴ장 결론에서는 기독교 무용창작 「바람의 언덕」을 통하여 나타내고자 했던 상실을 통한 복음적 메시지와 그 의미를 제시하였다. 상실로 인한 고난의 깊은 터널은 하나님 안에서 영적 성장이 기회가 되며, 상실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나은 삶으로의 회복을 위한 도약이 될 수 있다. 연구 과정과 내용, 상실의 아픔을 겪는 이들을 향한 공감의 마음을 서술하였다.

Ⅱ. 상실에 대한 이해

2.1 상실의 개념 및 유형

2.1.1 상실의 개념

인간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상황 속에 크고 작은 상실을 경험하게 된다. 상실이란 가치 있게 여기는 어떤 대상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 더는 가까이할 수 없게 되거나 그 대상과 더는 가치 있는 삶의 목적을 이루어 갈 수 없게 되는 상황으로 정의된다. 상실로 인한 슬픔은 인간의 삶에서 누구나 한번은 경험하는 것으로서 모든 문화나 사회를 막론하고 공통으로 나타나며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치유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오래도록 아픔의 흔적으로 남기도 한다. 상실은 개인의 외부사건이나 관계 경험에서 형성된 인지구조와 심리 정서의 바탕이 되는 내적 이미지에 강한 영향을 주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

상실을 경험하면 감정, 신체, 행동의 변화를 수반하는데, 심리적인 충격으로 인한 멘탈 붕괴나 슬픔, 불안, 분노 공포, 좌절 등의 감정변화가 나타난다. 가슴과 목이 답답하거나 심장박동이 빨라지거나, 숨이 차고 불면증이나 식욕저하 등이 신체적 변화가 나타난다. 행동의 변화로는 죄책감과 수치심, 불신과 부정, 혼돈과 혼란으로 인한 강박적인 행동이나 파괴적인 행동 등이 나타날 수 있다.[4] 상실을 경험한 사람은 이처럼 고통에만 반응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나 가치관 등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따라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까지 상황을 회피하지 않으면서 감정을 명확히 하려는 인지적 유연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5]

---

4) 김경호. (2023). “상실의 아픔과 대처방법 및 회복단계”. blog.naver.com>goldimage
5) 조은진. (2016). “삶의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의 관계에서 긍정정서, 인지적 유연성이 매개효과검증”.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p. 49.

2.1.2 상실의 유형

일반적으로 상실은 대상과 원인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으며, 학자마다 견해를 조금씩 다르게 구분하고 있다. 이는 어떠한 사건에 대해 한가지 상실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특정한 상실은 한 가지 이상의 상실과 뒤섞여 있게 되기도 한다. 남편과 사별하거나 이혼한 경우는 관계 상실에 역할의 상실이 더불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생계까지 걱정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물질적인 상실까지 더불어 겪게 되므로 충격과 슬픔이라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

상실 경험 체크 리스트를 개발한 Carla Sofka에 의하면 상실 경험을 죽음 관련 상실, 죽음을 포함하지 않는 관계 상실, 물질적·심리적인 상실 그리고 역사적 사건에 의한 상실의 4가지 범주로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6] 첫째, 죽음 관련 상실은 가까운 대상 또는 자신에게 의미 있는 대상을 죽음으로 잃는 것이다. 둘째, 죽음을 포함하지 않는 관계 상실로 이혼, 이별, 친구 관계의 단절, 가족과의 단절, 불임 등 다른 사람과 정서적이나 신체적으로 관계할 기회가 마감되는 것을 말한다. 셋째, 물질적 상실은 중요하게 애착하고 있는 물리적 대상이나 친숙한 환경을 상실하는 것이며, 심리적 상실은 목표나 꿈을 포기하는 등 자신의 중요한 정서적 이미지를 잃은 경험을 말한다. 넷째, 역사적 사건에 의한 상실은 전쟁이나 대학살과 같은 사건의 경험에 의한 사건을 의미한다.

Herbert Anderson & Mitchell Kenneth는 상실을 여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7] 첫째, 물질적 상실로 자신에게 친숙하고 소중하며 애착이 가는 대상을 상실하는 것으로서 심리적,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타격과 충격을 준다. 이는 다른 것으로 대체 할 수 없는 특정한 물건이 지니는 내적 가치로 인하여 상실 경험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초래한다. 둘째, 관계 상실로서 자신과

---

6) 김예인. (2021). “관계상실경험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p.6.

7) 이후주. (2022). “기독 중년 이혼 여성의 관계 상실 경험과 회복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기독교상담적 접근”. 박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대학원. p.31.

긴밀한 관계를 이어왔던 대상과 신체적·정서적으로 단절되는 것으로서 더는 가까이할 수 없는 관계적 상실 상태를 의미하며, 이별, 이혼, 사망, 이사 등이 이에 속한다. 셋째, 심리 내적 상실로 외부사건으로 인하여 내적인 상실을 경험하는 것이다. 꿈의 좌절이나 믿었던 것에 대한 실망감이나 기대했던 이미지가 실추되는 경험이다. 이는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서적 이미지에 대한 상실, 자신의 가능성에 대한 상실과 미래를 위해 꿈꾸던 계획을 포기해야 하는 상실 경험이다. 넷째, 기능적인 상실로 신체적 기능이라든지, 몸의 아픔 등의 상실로서 노화 과정과 연관이 있다. 몸의 근육이나 신경계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며 인생 전반에 걸쳐 발생하기도 한다. 다섯째, 역할 상실로 개인에게 주어진 사회적 지위나 위치에 따른 역할에 대한 상실로서 개인의 정체성과 연관이 있다. 대기 발령이라든지 퇴직, 은퇴 같은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역할이 없어진다는 것은 존재 자체의 흔들림이라 할 수 있다. 여섯째, 체계의 상실이다. 조직 공동체계 안에서 타인과 개인적 관계의 기능들이 없어지거나 수행되지 않을 때 개인적 구성원뿐만 아니라 전체로서의 체계가 흔들리는 상실을 경험한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른 세대 간의 갈등을 예로 들 수 있다.

Carl Hart는 상실의 유형을 대상의 존재 여부에 따라 추상적 상실, 실제적 상실, 위협적 상실, 가상적 상실 4가지로 구분하기도 하였다.[8] 실제적 · 추상적 · 가상적 상실은 대상의 존재 여부에 의해 분류된다. 실제적 상실은 눈앞에 존재하는 가족이나 친구 등의 대상과 실직이나 건강이 상실을 말한다. 추상적 상실은 막연한 상상이나 불안심리 등으로부터 나타나는 것들로 한 가지씩 또는 여러 개가 한꺼번에 다가오기도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희망, 야망, 자아존중감, 통제감을 상실한 것이다. 가상적 상실은 실제로는 상실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상상을 통해 상실을 경험한 것처럼 반응하는 편집증적 생각을 말하며 실제적 상실만큼 사실적으로 상실을 느낀다. 위협적 상실은 아직은 상실하지 않았지만 다가올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며 슬픔과 우울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상실이 유형에서도 가족의 이별, 부부의 이혼, 자녀들의 일탈, 질병의 선고, 일터에서의 해고, 사고로 인한 장애 등의 경험을 심리 상담학에서는 관계

8) 장문영. (2023). “관계상실경험자의 정서인식명확성과 우울의 관계:의미재구성과 인지적 유연성의 매개 효과.” 석사학위논문. 가톨릭 대학교 대학원. p. 7.

상실이라고 정의한다. 관계 상실은 친밀한 관계에 있던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더 이상 가까이 지낼 수 없게 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충격과 슬픔이라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외로움과 고립감 같은 심리적 고통이 삶의 전 영역에 걸쳐 영향을 끼친다.[9] 이러한 상실 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럽다고 보고하는 사건 중 하나는 사별, 이혼, 실연과 같은 관계 상실 경험이다. 관계 상실 중에서도 배우자와의 사별은 삶을 흔드는 깊고 강렬한 슬픔을 초래한다.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함께 해온 동반자와 다시는 감정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어떤 교감도 할 수 없다는 절망으로 인한 내면의 깊은 상처와 더불어 고통과 슬픔으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사별을 경험한 사람들은 상실 후 대상에 대한 그리움과 갈망을 느끼고 상실한 대상이 갑자기 떠오르거나 기억되기도 한다. 그로 인해 강렬한 슬픔과 우울,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가 몰려와 삶의 무의미해지거나 고립감, 희망의 상실되는 듯한 부정적인 증상들을 경험하게 된다.[10]

죽음과 같은 영구적인 관계 상실도 있지만 일시적인 관계의 단절 상실도 있다. 많은 사람이 놓치고 있는 내적 심리적 상실은 자신이 무엇인가 혹은 누군가가 되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잃어버리거나 미래의 특별한 계획을 포기해야만 하는 경험, 꿈을 포기하는 경험, 정서적인 이미지를 잃은 경험이다. 내적인 상실은 현실적 자각이 이루어지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겪기 시작하여 성인기에 이를수록 더 많아진다. 그러나 심리적 상실이 반드시 자신의 기대나 현실적 수준의 차이에서만 오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임무를 달성하거나 자신이 원하던 것을 이루고 난 이후에 상실감을 느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어려운 상황에서 공부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후 공허감과 허탈감을 경험하는 경우이다.

삶에서 자기에게 큰 의미나 가치가 없는 물건을 상실했다면 아무렇지 않게 스쳐 갈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인생 구조의 중심 요소이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몰입했던 관계가 있다면 이야기가 다르다. 이런 상실은 경

9) 김송이. (2020). “관계 상실 경험이 있는 중년여성의 가족 탄력성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대학원. p.58.

10) 최선재, 안현의. (2013). “상실경험의 의미재구성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 『상담학연구』. 14(1):323.

험하면 이후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처럼 상실의 유형은 다양하며 상실을 경험하게 되면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나아가 영적인 측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상실의 원인이나 내용 그리고 상실의 대상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은 대부분 우울, 불안, 분노, 원망과 같은 부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정서를 명확하고 인지하고 이를 기반으로 상실로부터 회복으로 나가도록 정서를 조절해야 한다.[11)]

2.2 상실로부터의 회복단계

상실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감정적 도전 중 하나이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이혼, 직장 상실, 심각한 건강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삶에서 깊은 상실감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에 대한 심리적 반응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상실로 인한 정신적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과 성장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신의학자인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상실의 다섯 단계 반응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복잡하게 뒤섞여진 감정을 나타냈다. 전형적인 상실의 모습이 정해져 있지 않듯 전형적인 반응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상실의 감정들을 통해 상실의 영역을 잘 이해하면 앞으로의 삶과 다가올 상실에 대해 잘 대처할 수 있다.[12)] 심리학에서는 상실을 고통으로 내려가는 4가지와 회복으로 올라가는 2가지로 나누고 있다. 애도 이론에서는 감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 감정의 굴곡을 거치면서 기능을 점차 회복하게 된다고 한다.

2.2.1 상실 경험

상실의 충격을 처음 접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으로 부정(Denial)은 자연스러운 자기에 대한 방어라고 할 수 있다. 정신이 멍해지고 망연자실해지면서

11) 구진영·장석진. (2019). “관계상실경험 대학생의 정서인식명확성과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심리적 수용의 매개효과”. 『교육문화연구』. 25(2):320.
12)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데이비드 케슬러 (김소향 역). (2014). 『상실 수업』. 서울 인빅투스. p.26.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상실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는 뇌가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일종의 방어기제로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감정의 단계다. 부정 감정이 올라가면 고통은 떨어지고 불안은 올라간다. 반대로 부정 감정이 내려가면 고통은 올라가고 불안은 내려가는 심리적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상실의 슬픔은 인생을 무의미해지고 감당할 수 없게 하지만 부정의 감정은 슬픔의 감정이 몰아치며 닥쳐오는 속도를 더디게 해주므로 심리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사람에게 감당할 만큼이 고통을 허락하시는 신의 방식이며 영혼의 보호장치기도 하다.[13)]

분노(Anger)는 상실의 단계에서 중요한 감정적 반응이다. 이 단계에서 사람들은 상황을 서서히 인식하면서 고통을 주는 대상이나 원망할 대상에게 분노를 품게 된다. 상실이나 변화에 대해 강한 분노와 불만을 느끼며, 그 감정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다. 사람들이 상실을 경험하면서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라는 생각으로 분노를 느낀다. 다른 사람이나 상황, 대상이 없다면 신이나 운명에 대해 분노를 품으며 책임을 전가하기도 하는 등 내면의 갈등이 생긴다. 상실의 현실을 수용하지 못하면서 내면의 갈등과 혼란이 분노로 표출되는 것으로, 이 분노는 자신을 향한 자책이나 탓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이는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여 감정적 폭발이나 공격적인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게도 한다.[14)]

2.2.2 상실 수용

상실로 인한 분노의 감정이 어느 정도 진정되면 자기 앞에 발생한 상황과 직면하게 되고 서서히 현실을 인정하게 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내외부적으로 감정적인 타협(Bargaining)을 시도하게 된다. 상실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시도해보려고 하며 과거의 행동에 대한 잘못된 행동과 결정에 대해 자책과 후회를 한다. 이미 일은 벌어졌는데 다른 결정

13)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데이비드 케슬러 (김소향 역). (2014). 상게서. p.29.
14) 최선재. (2010). “상실 경험의 의미 재구성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p. 15.

을 했으면 상황이 나아졌으리라 생각하며 주어진 고통을 경감시키거나 없어질 것이라고 여기고는 되돌릴 방법을 찾으려는 심리적인 노력이다. 타협은 마음의 상실의 어느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반응으로 타협의 감정은 상실 경험자가 각 단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쉼터 같은 정거장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강한 감정들이 지배하고 있는 공간들이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타협이 그 간격을 채워주는 것으로 마구 흐트러져 있는 감정이 혼란 상태에 질서를 가져오는 효과이다.[15)]

상실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자신과 대상을 분리하는 것으로서 강렬한 고통과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애도(Mourning)의 과정이다. 애도는 상실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내적 감정변화를 통해 수용해 나가는 과정이다. 애도는 단순히 슬퍼하는 일이 아니라, 슬픔의 원인을 받아들이고 일상의 삶으로 회복하는 과정상의 행위를 의미한다. 상실에 대한 애도는 개인의 경험한 상실의 독특함과 강도에 따라 기간이 다르지만, 애도의 과정을 충분하게 통과해야만 정신적인 평정이 회복된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애도 과정은 상실한 대상에게 남아 있는 기억과 희망을 분리하는 과정이며 상실한 대상과의 정서적 유대감이나 친밀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건강한 애도의 과정은 상실한 대상에게 투여되었던 리비도를 서서히 걷어내며 자연스러운 애도의 정서들을 충분하고 적절하게 해소되어야 이후의 삶에 적응할 수 있게 된다.[16)] 성공적인 애도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의 정서적 접촉을 통해 의사소통과 정신적 유대를 이루므로 애도의 감정을 촉진 시킬 필요가 있다. 외부 접촉은 정서적 연결을 형성케 함으로 내면의 복합적인 감정의 요소들을 개방하고 확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2.2.3 상실로부터의 회복

인생에서 상실의 경험을 피할 수는 없지만 고통 가운데서도 바람에 따라 유연하게 춤추는 갈대처럼 꺾이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마음의 힘이 우리 내면에 존재하고 있다. 상실의 고통과 역경에 대해서 어떻게 의미를 부여

15)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데이비드 케슬러. (김소향 역). (2014). 전게서. p.41.
16) 박현정. (2024). “상실과 애도에 관한 질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대학원. p. 8.

하고 인식하느냐에 따라 삶은 행복으로 나아가게 된다. 상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서서히 우울함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삶에 희망과 용기를 찾아가는 과정은 자신에게 처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태도를 갖추어 회복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회복탄력성(resilire)이라고 부르는데, 역경을 경험했거나 경험하면서도 이전의 적응 수준으로 돌아오고 회복할 수 있는 내적 능력을 말한다.[17]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통해 상실을 경험해야 한다면 상실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하는가는 개인이 선택이지만 인생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상실로부터의 회복을 위해서는 고통 없이 위대한 성취를 이룬 사람은 없다는 말처럼 상실의 고통과 아픔을 통해 인생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생각의 전환이 곧 회복으로의 시작이다. 오뚜기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탄력성이 뛰어나다. 이처럼 상실의 고통을 다른 사람의 시각과 관점으로 객관적으로 재해석하며 상황을 재정립하면 상실을 인생의 변곡점으로 삼는 통찰력을 배우게 된다.[18] 시련을 겪더라도 다시 회복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인식과 결코 회복할 수 없다는 생각이 차이는 삶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한다.

상실로부터의 회복을 위해서는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빅터 프랭클에 의하면 삶에 의미를 추구하지 못하면 절망에 빠진다고 강조한다.[19] 이는 삶의 고통스러운 사건을 겪을 때 고통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삶의 의미는 변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며 상실의 고통에서 각자의 삶의 의미를 찾고 삶을 새롭게 하는 의지를 다지면 인생은 달라지며, 삶에 대한 태도의 변화로 인한 긍정에너지로 성장하고 더 단단해지는 삶의 전환점이 된다. George Reker는 삶의 의미를 존재가 마주하는 삶에서의 상황에 대한 이해와 가치 있는 목표를 추구하고 성취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20] 인생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기에 타인과의 연결은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해의 영역을 넓혀

17) 정성진. (2023). “꺾이지 않는 마음, 회복탄력성”. www.syu.ac.kr.
18) 김시현. (2024). 『회복탄력성』. 서울 : 다른상상. p. 22.
19) 신다예. (2019). “개인적 가치 및 삶의 의미와 우울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p. 10.
20) 남태현. (2015). “정서적 지지가 삶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관계성을 통한 진정성의 매개조절효과”.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p. 53.

주므로 자신을 탐색하고 드러내기를 주저하지 않는 용기를 갖게 하고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게 한다.

인생에 역경을 겪어 본 사람만이 다시 나아갈 방향과 일어서야 할 필요를 절감하게 된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마음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행복의 기준을 높이고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키우며 긍정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긍정성은 자기조절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을 동시에 높인다. 긍정적 정서 향상을 위한 감사하기 훈련을 통해 뇌를 긍정적인 뇌로 바꿔나가는 것이다. 감사하기는 놀라운 힘이 있어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하여 정서조절에 영향을 끼친다. 즉 내적으로 부정적인 정서들을 가라앉게 하고 해독하게 도와줌으로 개인적인 인격의 발달과 역경에 성숙하게 대처하여 내적 인지능력에 긍정적 기능을 가져오므로 감사 성향이 상실로부터의 회복을 위한 훈련으로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21)]

2.3 성경을 통해 본 상실과 회복

인간은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상실을 경험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또한 인생에서의 상실은 피해 갈 수 없으며 상실로 인한 정서적 심리적 고통인 분노와 아픔 등이 감정을 갖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거움을 내려놓으라고 하신다. 하나님은 분노가 분노로 끝나지 않고 은혜로 끝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기독교인들은 상실로부터의 회복에 대한 관점과 대처하는 방법에 있어 세상과는 다름을 볼 수 있다. 큰 선박에는 항해 도중 태풍으로 인해 파도가 거세져서 배를 뒤집힐 것만 같은 풍랑 속에서도 배의 밑바닥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평형수로 인해 중심을 잡는다. 평형수는 배의 무게를 조정하고 균형이 되살아나게 하는데 이를 복원력이라고 한다.[22)]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복원력 곧 마음의 근력은 기도의 힘으로 생겨나며 삶의 의미 또한 하나님 안

21) 김주환. (2019). 『회복탄력성』. 서울 : 위즈덤하우스. p. 246.
22) 박명배. (2024). 『은혜에 꽉 잡힌 인생』. 서울 : 국제제자훈련원. p.248.

에서 찾기 때문에 놀라운 복원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상실의 어려움을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석하고 풀어가며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 감을 말한다.

>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23]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본 상실에 대한 자세와 태도이다. 상실로 사방이 막혔다고 생각할 때 기독교인들이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 위함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긍정적 시각과 믿음의 결단으로 감사의 조건을 찾을 때 더 나은 삶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 세상 학문에서도 역경에서 극복하는 방법으로 감사 성향을 훈련하라고 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늘 감사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상실의 아픔이나 시련으로부터의 회복 능력은 누구보다도 탁월한 마음의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언제나 신실함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가장 좋을 하나님의 때에 사방의 막힘을 허물어주심에 대한 긍정적 사고와 마음으로 고난을 대처할 수 있다.

시편에는 상실의 아픔에 처한 시인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갈망하는 여러 편이 탄원 시가 있다. 현재의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며 눈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올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

23)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1998). 서울 : 대한성서공회. 고린도후서 4:8-10.

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일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24]

시편 42편은 대표적인 탄식 시로 하나님을 향한 영적 목마름과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있다. 삶을 에워싼 극심한 고통과 슬픔 속에 있으며 사람들로부터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조롱으로 상실의 아픔과 더불어 하나님에 대한 의문마저 품게 한다. 그러나 시인은 과거에 하나님을 예배하던 기쁨의 시절을 회상하며 그리워한다. 이처럼 상실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때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을 품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이 기독교인의 상실에 대한 마음의 근력이며 복원력이다. 과거의 기쁨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는 것이 오늘의 고난을 이겨내는 내적 힘이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결국 다시 일으키시고 기쁨과 평안으로 채우시며 변함없이 함께하시며 모든 고난에도 신실하심은 영원하시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처럼 상실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온전한 기쁨이 되실 것임에 대한 믿음이 확신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

상실의 고통은 우리만이 아니라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죄의 담으로 우리와의 사랑이 막히게 되었을 때 하나님도 슬퍼하셨다. 성경이 제시하는 상실에 대한 해법은 집착을 버리고 흘려보낼 것은 흘려보내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상황에 대한 수용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체념적 포기이거나 긍정적으로 생각을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신앙 안에서 받아들인다는 것은 현실에 대한

24) 상게서. 시편 42:1-5.

인식이고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과정이다.[25]

성경은 상실로 인한 슬픔을 이겨낼 자원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이라 한다. 삶의 역경과 아픔이 삶을 둘러싸고 상실의 고난과 혼란 속에서도 온 우주 만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신다. 상실은 죄의 결과만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도록 훈련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안에서 이루어진 믿음을 향한 시험이 통로일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고난을 통해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식하게 한다.

고난은 유익이라고 했듯이 고난을 통해 주님의 율례를 배울 수 있고 고난을 통해 믿음이 성숙해지기 때문이다. 인생에서 겪는 상실의 시간은 외롭고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광야처럼 온갖 소리로부터 격리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더욱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성경에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였으니 하나님이 삶에 허락하신 상실을 어떻게 다루시고 승리하게 하시는지에 대한 확신으로 인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성경 안에 등장하는 인물을 통하여 다양한 상실을 주제로 한 이야기들을 살펴볼 수 있다. 이는 성경에 나타난 상실의 사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신실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깨닫기 위함이다. 나아가 상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알아봄으로 상실로 인한 슬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공감을 일으키며 모든 위로와 회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재인식하기 위한 것이다.

2.3.1 요셉의 상실과 회복

성경에 기록된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시작되고 있다. 야곱의 노년에 얻은 아들 요셉은 여러 아들보다 아버지의 특별한 깊은 사랑을 받았지만, 어머니 라헬이 베냐민의 출생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일찍 사별

25) 안경승. (2014). “상실로 인한 슬픔 이해하기”. 『복음과 상담』. 22(2). 31.

상실의 큰 슬픔을 경험하게 된다. 아버지의 편애와 그가 꾼 꿈으로 인해 다른 형제들의 미움을 받게 되고, 형제들의 손에 의해 17세에 노예로 팔려 가면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관계 상실을 경험하게 된다.[26] 애굽 시위 대장 보디발의 노예로 살면서 신임을 얻고,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삶으로 나타내었다.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로 인하여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로부터 단절되어야만 하는 상실에 직면하게 된다.

이처럼 인생에 여러 번의 복합적인 상실을 경험한 요셉이 좌절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신과 함께하시고 형통하게 하는 손길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요셉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에 거듭되는 상실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의 근력이 누구보다 강하기에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그의 꿈을 포기하지 않으므로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고결한 성품으로 완성되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상실을 통해 하나님은 요셉의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우셔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하셨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으로 인하여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기근을 피하여 고센 땅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된다. 불안해하는 형들에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27] 라고 말하며, 요셉은 상실 경험을 대하는 자세와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말하고 있다. 나아가 형들을 향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모의하였으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히려 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했다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을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 신실한 믿음과 마음의 근력이 강한 요셉을 통해 본 상실과 회복의 의미는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삶을 드리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26) 전게서. 창세기 37:1-36.
27) 상게서. 창세기 45:7-8.

영광을 드러내시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임을 깨달을 수 있다.

2.3.2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상실과 회복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12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건강의 상실로 육체적인 고통과 치료를 위해 가진 것을 다 허비해야 하는 물질적 상실과 부정한 자로 낙인이 찍혀 사회로부터 비난받으며 도덕적 죄인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관계 상실을 겪었다. 사람들로부터 성전이나 회당 출입을 금지당했으며 사람들이 있는 곳은 어디에도 갈 수가 없는 극도의 외로움을 느꼈다. 여인은 혈루증이라는 육체적 고통과 함께 사회적인 비난과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상실을 경험하며 인생에 실낱같은 소망마저도 사라져가고 있었다. 그 여인에게 예수께서 이 지역을 지나간다는 소문이 들렸고 절박함에 용기를 내어 거리로 나가게 된다. 많은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것만 같은 기대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병이 나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예수님께서 돌이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말씀하셨다. 두려워하며 예수님 앞으로 나온 그 여인을 향해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28]라고 말씀하시며 여인의 절박함을 믿음으로 여겨주셨다. 12년 동안 복합적 상실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 하루하루가 지옥과도 같았을 것이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고치지 못하고 누구를 만나서 하소연할 수도 없이 홀로 견디어 내야 했을 외롭고 지친 여인의 삶에 예수님으로 인한 회복이 일어난 것이다. 성경은 삶에 찾아온 상실은 나의 힘이나 방법으로 힘쓰고 애써도 바뀌지 않음을 말하며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께 나아가면 이미 우리 삶에 찾아와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게 하시므로 상실의 문제와 상처를 해결하시고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

28) 상게서. 마가복음 5: 25-34.

이 밖에도 성경에 나타난 다양한 상실의 사례들을 통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견디기 힘든 고난의 시간에도 변함이 없음을 보며 상실에 대한 인식을 달리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다. 고통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여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성장과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깊은 상실의 고통으로부터 하나님의 창조 세계로 이끄심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은 상실의 슬픔을 토로하며 분노와 상처를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을 수 있으며,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상실의 아픔도 소망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 받으며 회복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29] 인생에 여기까지 도우신 '에벤에셀의 하나님', 현재에도 삶에 함께하시며 도우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으로도 여전히 모든 삶의 여정에 함께하시며 도우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영적 깊은 관계를 맺으며 날마다 매 순간 감사하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30] 라는 말씀이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29) 정희성. (2010). "상실의 관점에서 읽는 욥기-목회 상담적 연구". 『한국기독교학회』. 70. 359.
30) 상게서. 로마서 8:28.

Ⅲ. 작품 개요

3.1 안무 의도 및 작품 내용

3.1.1 안무 의도

인생은 변화무쌍한 바람을 닮았다. 가치 있다고 여기는 무언가를 잃어버린 상실의 바람이 삶을 겹겹이 에워싸도 인생의 여정은 계속하여 완성 되어 간다. 상실의 고통이 엄습하고 두려울 때 시편 기자는 고백한다.

>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5)

이는 시련이 찾아왔을 때 무너지지 않은 인생의 태도를 말한다. 기독교 창작무용 「바람의 언덕」은 인생의 상실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말하고자 하였다. 고난의 깊은 터널을 지날 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영혼의 평안함을 얻으며 하나님 안에서 상실이란 수업을 통하여 성장하고 단단해지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음을 표현하고자 했다.

슬픔은 상실에 대한 지극히 정상적인 정서적 반응이다. 상실로 인해 슬픔을 겪는 사람들은 공통으로 고통과 분노 그리고 죄책감과 같은 감정들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고 표현하게 될 때 슬픔에 대한 위로와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 분노는 상실에 대한 즉각적이고 보편적인 반응이다. 분노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은 부정적이지만 이 또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정서 중 하나이며 심리적 영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하며 표현하려고 하였다. 상실은 인간이 겪어야 할 고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

여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 우리는 깊은 상실의 고통으로부터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받을 수 있음을 작품에서 의도하였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를 많이 경험하게 된다. 바람이 그 방향이 일정하지 않은 것처럼 말이다. 소리 없이 영혼을 잠식하는 상실은 어느 날 살을 에우는 차가운 겨울바람처럼 삶을 휘감아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다. 상실의 아픔은 영적 시야를 가리고 삶에 닥친 현실을 부인하고 슬픔, 분노, 원망 등 격한 감정이 덩어리들을 밖으로 표출하게 만든다. 영혼이 밤이 찾아왔을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자각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인간은 상실의 슬픔을 토로하며 분노와 상처 입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을 수 있다.

>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 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 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 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시편 102: 1-5)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 모든 아픔을 토로한다. 그러면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상실의 아픔도 격했던 감정들도 사라지고 진정한 위로와 평안으로 채워지게 된다. 이 작품에서는 이런 상실의 시간을 벗어나 소망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게 되고 회복되는 여정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로마서

8:26~27)

특히 「바람의 언덕」 안무는 상실의 아픔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다. 성령은 바람(루아흐)을 의미하며 위로와 유익을 주고 인간의 구원과 삶에 밀접해 계시기 때문이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유익한 도덕적 정결을 부여하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며, 마음을 새롭고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해 주신다. 우리 삶에 보혜사(돕는 자)로 오신 성령께서 상실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을 인간의 노력이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으로 변화를 가능케 했음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3.3.2 작품 내용

상실이란 감정을 가장 명료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는 무엇인가라는 고심 속에 "끝"이라는 단어를 선택했다. 누군가로부터 어떤 상황에서 "당신은 이제 끝입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이 사람들은 상실의 고통이 엄습할 것이다. 「바람의 언덕」 작품은 불현듯 찾아온 꿈의 좌절로 인한 심리 내적 상실과 조직 공동체의 역할 상실, 이로 인한 신체적 기능 상실 등 복합적인 상실 경험에서 시작된다. 상실을 경험한 여인은 슬픔을 떨쳐내려 애써 보지만 상실의 고통과 아픔으로 자아는 부서지고 내면 안에 갇히며 더 깊이 슬픔 속으로 잠식되어 간다. 영적 시야는 흐려지고 닥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 분노와 원망의 감정들이 솟구쳐 밖으로 분출되어 나온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이면 나야라는 감정은 다른 사람과 상황을 탓하고 하나님마저 나를 잊어버린 것만 같은 서운함, 외로움 등이 갈등과 혼란으로 감정이 격해진다.

하지만 그럴수록 이 고통은 나의 의지나 노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식하게 되어 절망한다. 칠흑같이 어두운 상실의 밤에 지난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시기를 눈물로 도우심을 구한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시편 102:2)" 주의 인자하심을 따

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한다.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위로의 성령으로 바람처럼 다가와 상실로 얼룩진 마음의 상처를 위로하고 치유하여 회복하게 한다. 믿음의 눈이 열리며 하나님의 사랑이 바람을 타고 마음으로 들어온다. 나의 연약함을 나보다 더 안타까워하셨을 예수님의 사랑 앞에 삶의 무게를 내려놓는다.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나를 감싸며 삶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온다. 주님은 신실하시며 그 사랑은 영원하기에 이제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며 허락하신 새로운 날들에 대한 소망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을 오늘도 바라볼 것을 고백한다.

3.2 작품의 구조 및 형식

기독교 예술 창작무용「바람의 언덕」은 총 4장으로 이루어졌으며 슬픔, 절망, 분노 등 정서적 고통을 수반한 복합적인 감정변화를 보이는 상실 경험과 연약한 존재에 대한 자각과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표현한 상실의 수용,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과 온전한 상실 회복으로 구성하였다. 장면 구성을 위하여 무용과 음악, 대사, 의상, 오브제, 조명 등 다양한 요소를 조화롭게 배치하므로 한편의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한 작품으로 완성하였다. 인생에 찾아온 상실과 회복을 변화무쌍한 바람이란 언어를 통해 은유적으로 표현함으로 제목과 장별 주제가 하나의 흐름을 갖도록 하였다.

상실의 시간은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며, 누구에게나 아픈 기억이기에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이 있을 때 절대자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다. 이 작품은 상실의 고독과 아픔을 마주한 인간의 감정변화와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며 모든 상황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평안과 위로를 얻게 된다. 소망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상실을 통해 더 나은 삶으로의 회복을 위한 도약이 된다는 이야기를 주제로 하고 있다.

각 장의 주제를 표현할 수 있는 음악과 무용 장르를 선택할 때 상실 경험의 슬픔과 분노의 감정 표현은 현대적 느낌이 음악과 현대 무용의 스타일로

표현하였다. 상실의 아픔을 토로하는 탄식의 기도는 시편 102편의 내용을 음성 녹음하여 하나님을 향한 절실한 갈망을 나타냈다. 성령의 바람은 wind chimes Bell의 소리를 통하여 형체는 없지만 움직임을 느낄 수 있도록 효과음을 가져와 무용을 통하여 보이도록 시각적으로도 위로와 평안의 감정을 느끼도록 연출하였다. “바람이 불면” 가스펠은 한국 무용 스타일을 사용하였다. 안무의 움직임과 무대배치, 조명으로 전체적 주제를 전달하고자 하였으며 감정 전달을 위한 의상과 오브제를 사용하여 관객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

이 작품에서 사용된 상징적인 긴 천의 오브제는 상실 경험자의 마음을 나타내며 감정 표현의 극대화를 위해서 사용되었다. 춤의 움직임, 무대배치, 조명, 음악, 대사 등을 통하여 작품의 주제와 의도를 강화하는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관객들에게 작품의 흐름을 잘 전달되도록 하며 메시지를 강화하여 안무의 의도가 효과적으로 드러나도록 했다.

[표 3-1] 작품의 구조

장구분	소제목	내용	시간
1장	상실의 바람	예기치 못한 상실 경험으로 슬픔과 절망 안에 갇히게 되었다. 현실에 대한 분노와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원망의 감정 표현	4분 10초
2장	탄식의 바람	폭발했던 감정으로 더 무기력해진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긍휼을 구하는 절실한 갈망의 기도 표현	2분 10초
3장	성령의 바람	성령께서 탈진한 마음을 위로하며 연약함을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함	2분 5초
4장	소망의 바람	믿음의 눈이 열리며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이 넘치며 새로운 소망으로 회복됨	3분 25초

1장 도입부에 상실의 아픔을 예시하기 위한 차가운 겨울바람 소리 음향과 다크 블루 조명을 사용하고 “Prisoner of Darkness” 음악으로 상실의 슬픔을 표현하고 오브제를 이용하여 감당할 수 없는 슬픔 안으로 갇히는 절망을 연출하였다. 후반부에는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도입으로 북소리를 사용함으로 감정변화를 예시하고 적색 조명을 사용하여 감정의 격함을 부각하였다. “Blame On You” 음악으로 이 상황에 대한 분노와 원망의 감정들을 표출하였다.

2장은 슬픔과 분노로도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 없음을 무음으로 연출하여 한없는 무력함을 표현했다. 그러다 자신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앞에 나아가 시편 102편의 탄식 시로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긍휼과 그 얼굴의 도우심을 구한다. “Unreachable” 음악을 배경으로 하여 감정의 깊이를 더하고 핀 조명만을 사용하여 여인의 절절한 감정이 집중적으로 보이게 했다.

3장은 고통으로 탈진한 여인에게 성령의 바람처럼 다가와 여인을 위로하고 힘을 얻도록 돕는다. light Blue 조명으로 흰옷 입은 성령님의 순결하고 깨끗한 모습이 부각 되도록 하였고 “Secret Wind Chimes” 음악으로 평안과 치유를 표현하였다.

4장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소망으로 회복되며 그 이끄심에 감사로 화답하는 장으로 황색 조명을 사용하여 기쁨, 희망을 표현했다. 전체 구성의 결론적 부분으로 새로운 날들에 대한 소망으로의 회복을 나타내는 이권희 작사 작곡인 “바람이 불면”을 사용했다.

3.3 작품의 구성요소

3.3.1 움직임

무용은 움직임을 통하여 표현하는 예술작품으로 몸으로 시간과 공간을 표현하고, 눈빛과 표정, 몸짓을 통해 내면을 투영하고 관객들에게 감정을 전달한다. 무용가들은 기본적 움직임의 테크닉과 고난도의 기술적 움직임을 오랜

시간 동안 단련하고 연마하며 익힌다. 따라서 자신만의 독특한 움직임의 스타일과 표현력으로 발전시켜감으로 더 깊은 감명을 전달하게 된다.

1장의 움직임의 요소는 상실 경험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뒤로 걷는 움직임을 통해 마음과 신체의 감정을 강화하였다. 현대 무용은 개인의 사고와 감정 표현에 적합하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기에 현대 무용의 움직임을 통하여 상실자의 상한 마음을 상징하는 오브제를 밀어내고 당기는 움직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동작을 점점 확장하였다. 슬픔에 잠식하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슬픔에 잠긴 자들의 감정적 반응을 의식하여 수축과 이완의 움직임을 사용했다. 오브제 안에서의 움직임을 절제하여 정적의 흐르는 상태를 가장하여 슬픔의 깊이를 나타냈다. 도입은 직선으로 움직이다가 곡선을 만드는 움직임으로 감정적인 몰입을 유도했다. 후반부는 현대 무용의 스타일을 통해 격한 감정들을 표현했다. 북소리 비트에 따라 분노가 표출되는 격정적 감정의 움직임으로 손과 발 전신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움직임에 집중했다. 첼로 음악에 따라 오브제를 이용한 팔의 큰 움직임으로 내면에서 흐르는 긴장된 감정을 드러내었다. 오브제를 신체 일부처럼 움직임을 하여 감정과 분위기 변화를 가져와 돌거나 던지거나 회전하는 등 격렬한 동작의 현대 무용의 움직임을 통해 분노의 느낌을 낼 수 있도록 하였다.

2장은 음악 없이 사선으로 걸어가다가 뒤돌아보며 원을 그리는 움직임을 통해 무언가를 기억해내는 느낌을 주었다. 음성녹음으로 된 기도는 오브제를 하늘로 들어 올리고 내리는 동작과 높낮이와 주저앉는 동작 그리고 신체의 떨림을 이용한 동작으로 절실함을 무너지는 신체의 에너지를 이용하여 천천히 바닥에 몸을 떨어뜨렸다.

3장은 바람에 움직이는 윈드 차임벨의 음악에 따라 한국 무용의 호흡으로 무대 위를 잔걸음으로 미끄러지는 듯한 빠른 움직임과 동작으로 공간적 요소를 다양화하여 움직였다. 부드러운 팔의 움직임과 큰 곡선을 그리는 움직임은 평화로운 분위기를 연출하여 은 잠재의식 속에서 자연스럽게 감정이 전달되도록 하였다. 한국 무용은 움직임 구성에 있어서 주위 공간과 땅과의 조화와 통일감을 추구하는 무용이기에 곡선으로 완만하게 공간 속으로 순응하는 듯한 움직임은 조화와 안정을 이루어 바람의 성령을 표현하기에 적합하다고 생

각했다.

4장은 창작 한국 무용으로 한국 무용의 호흡과 선적인 움직임을 바탕으로 현대 무용의 자유로운 동작들과의 조화를 이루어 내면의 감성을 확장한 움직임으로 표현하였다. 이 작품 전체 구성에서 전개해 온 앞장들과 변화는 있으나 연결성이 있는 움직임으로 메시지를 표현하고자 했다. 음악과 가사에 알맞은 움직임과 시선, 무대에서의 공간 움직임 등을 적절히 사용하여 움직임을 확장하여 표현하였다. 특히 4장 “바람이 불면” 가스펠은 기독교 무용의 정체성을 가지고 몸짓의 움직임으로 표현하였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예배하며 감사하는 동작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 그리고 신앙 고백적인 움직임으로 표현했다.

> 춤은 춤추는 사람의 머리와 가슴, 손과 발, 그리고 신체의 모든 기관들이 완전체로 조화를 이룬 ‘인간’이라는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마음과 영혼의 교향곡이다. 그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내면세계, 즉 사랑과 미움, 절망과 소망, 슬픔과 기쁨, 꿈과 이상, 그리고 경외심 등, 수많은 감정과 정서적, 심리적, 영적인 것들까지 다양한 음색의 표현적 ‘움직임’들을 통해 표출되는 하모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신체로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의 울림은 그 영혼의 깊은 공명이 신체의 리듬과 다이나믹스 등을 통해 우러나오는 진솔한 메시지인 것이다.[31]

3.3.2 오브제

무용 작품에 의미와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한 요소로서 신체의 움직임이나 감정을 이끌어 가기 위해 활용되므로 작품에 활력을 불어넣고 예술적 가치와 표현력을 향상할 수 있다. 안무가가 창작 과정에서 작품의 주제와 자신의 의도하는 목적에 따라 효과적인 표현을 위해 오브제를 선택하고 중요한 도구로 사용함으로 창의적인 사고의 힘과 작품에 예술성과 감상력을 뛰어나게 한다.

---

31) 박영애(편). (2023). 『기독교 무용을 위한 실제』. 서울:(주)내일이비즈. p.13.

그러므로 오브제는 무용 작품의 전체적인 표현과 주제 표현에 큰 영향을 미침을 생각해야 한다. 주제가 의미하는 내적 의미를 깊이 표현하고 오브제를 통한 창의적 사고를 무용의 동작과 음악 등의 요소와 유기적으로 융합되면서 독창적이며 표현력을 갖춘 작품으로 완성하게 된다.[32] 이처럼 무용에서의 오브제는 신체와 공간 그리고 시간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다양한 요소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독교 창작무용「바람의 언덕」에서의 오브제 활용은 흑백의 긴 천과 깃털 핀, 흰색 머리핀이 있다. 1장에서 활용된 흰색과 검정이 혼합된 4m 길이에 120cm 폭이며, 상실로 인한 아픔으로 얼룩진 마음을 표현하는 요소로 사용되었다. 현대 무용 작품〈SWAN〉(2014)에서 흰색과 검은색을 무용 오브제의 색상을 삼아 줄거리를 표현하였듯이, 상처 입기 전 마음의 상태를 흰색으로 상처, 아픔, 고통 등 어두운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는 검은색이 혼합된 천의 오브제를 통하여 시각적 대비효과와 내면 감정이 충돌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상실의 마음을 떨쳐버리려 오브제를 통한 반복 동작으로 표현했고, 원으로 만든 오브제 안에 들어가 있어 심리적 압박감을 연출하는 표현의 도구로 사용하였다. 오브제가 상실 경험자의 심리적 상태를 시각적 형태로 보이도록 함으로써 슬픈 감정을 극대화하는 표현 도구가 되도록 사용했다. 후반부에는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천을 확장해서 치고, 돌고, 던지는 동작들로 격렬한 감정을 표현하는 효과적인 요소로 사용했다.

2장에서의 오브제는 상실의 복합적인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표현에 사용됨으로 아픔으로 응어리진 감정의 응축을 나타내고 있다. “나는 재를 양식 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시들어짐 같으니이다”(시편 102:9-11) 라는 고백을 표현하고 관객과의 이해와 소통에서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3장에서도 이 오브제는 흰색으로 검정 부분을 덮어 감싸는 동작 표현으로 상실의 회복을 암시하는 요소로 사용했다. 위로의 성령이 힘써 나를 위로하고 나의 연약함을 탄원하는 장면에서 오브제로 인한 연출은 동작이나 감정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을 오브제가 중요한 역할을 해줌으로써 작품 연결을 한

32) 장차오. (2022). “무용 창작시 오브제의 기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대학원.p.40.

층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3장에 사용된 흰색 깃털 핀의 오브제는 순결과 거룩함을 상징한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마 3:16, 막 1:10, 눅 3:22, 요 1:32). 사 복음서는 모두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에 관해 기록하기를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라고 말한다.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지만 볼 수 있는 형체로 표현했습니다. 비둘기는 순결과 완전무결의 상징이며(마태복음 10:16)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의 형체가 보인 것은 예수님께 부어진 영이 거룩하고 죄 없는 영이었음을 의미하고 있다. 노아의 홍수로 땅이 물로 뒤덮였을 때 물이 마름을 확인하러 나간 비둘기가 감람나무 가지를 물고 돌아왔고 그 이후로 비둘기는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에 관한 좋은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평화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 3장은 “성령의 바람”이란 소제목으로 구성되었고 성령을 시각적 형태로 표현함으로 비둘기 같은 성령을 상징하는 오브제로 사용하게 되었다.

성경에서 색상은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하얀색은 신학적으로 순결, 거룩함, 죄의 용서, 그리고 빛을 상징한다. 구약에서 하얀색은 눈과 같이 밝고 깨끗한 이미지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함을 상징하거나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상태로 묘사된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육적 치유를 상징하며 회복의 과정을 반영하고 있다.[33] 이런 의미에서 4장의 오브제는 활용되었다. 상실의 아픔을 성령을 통해 치유 받고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회복되었음을 선포하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레위기에서 대제사장이 흰 세마포 옷을 입는 행위는 단순한 외적 순결을 넘어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과 영적 자세의 깨끗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 오브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삶의 의미 변화와 영적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임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었다.

3.3.3 음악

33) 크리스찬 라이프. (2024). “성경 속의 색채 상징 하얀색 또는 빛”. cubible@naver.com

음악은 무용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이며 심미적인 요소로 관객과의 소통에 있어서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한다. 음악이 무용수의 동작과 몸짓을 관객들에게 이해시키는 도구가 된다. 안무가의 음악에 대한 이해 여부에 따라 작품을 통해 그대로 표현되므로 음악의 역할은 특별한 의미와 고유성을 지니게 된다. 무용 작품에서의 음악은 어떤 범주에 국한되지 않고 움직임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모든 소리의 유형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소리의 재료들은 음악, 음향효과, 음성언어로 구성되며 음향효과는 동작의 에너지를 청각적으로 연출하여 심리나 내면의 깊이를 표현하는 역할을 한다.[34)]

[표 3-2] 음악

장구분	음악	시간
1장	Prisoner Of Darkness Blame On You	4분 10초
2장	음성녹음 + Unreachable	2분 10초
3장	Secret Wind Chimes	2분 5초
4장	바람이 불면	3분 25초

「바람의 언덕」은 음악, 음향효과, 음성언어로 구성하여 감정과 내용의 흐름을 연결하는 이해와 소통의 매개체 역할을 했다. 1장의 전반부는 겨울바람의 음향효과에 음성언어를 통해 작품에서 전개 방향을 암시했다. 음악 “Prisoner Of Darkness” (2분 5초) 느린 템포의 피아노 선율에 음향을 첨가해 슬픔으로 더 깊이 잠식되어 이끌려 들어가는 느낌이 있는 곡이다. 구슬프면서도 우울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상실로 인한 아픔의 감정을 잘 표현하게 했다. 후반부에서는 북소리 음향을 사용하여 감정의 변화를 표현하고 있으며, 바로 연결되는 “Blame On You” (2분 5초) 곡은 일어난 상황에 대한 참담한 마음을 첼로 연주로 무겁게 연주하며 용암이 분출되기 직전 같은 감정으로

34) 안혜원. 김은수. (2015). “무용음악의 고유성과 역할”. 『한국무용교육학회』. 26(4). 116.

분노의 표출을 예시하다가 빠르고 강한 비트의 음악으로 전환되면서 나의 아픔은 '네 탓이야!'라고 격렬한 감정을 끌어내도록 했다.

2장은 무음으로 감정변화를 예고하고 성경 '시편 102:1-11'의 탄식 시를 음성언어로 고백하여 상실의 아픈 감정들을 내뱉지만 그럴수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 감정에서 "Unreachable(갈 곳 잃은 소녀)" (2분 10초) 음악은 탄식하는 애도의 감정을 관객들에게 더 깊은 아픔으로 전달하도록 하는 요소로 사용하였다.

3장은 'Relaxing Music Films'에서 제작한 "Secret Wind Chimes" (2분5초) 음악은 사람들의 긴장된 마음을 이완시키고 치유와 평안을 위해서 만들어진 음향이다. 자연의 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wind chimes bell은 음악치료를 위해 많은 곳에 쓰이고 있어서 상실의 아픔을 치유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선택하였다. 바람처럼 다가오는 성령께서 윈드벨 소리를 통해 그곳에 함께 있음을 느껴지도록 하는 감성 자극으로 공감 유도를 위해 사용하였다.

4장은 이권희 작사, 작곡이며 박유라가 부른 "바람이 불면" (3분 25초) 가스펠을 사용하였다. 가스펠은 가사를 통해 감정과 상황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상실로 인한 고통과 탄식의 아픔을 표현하고, 바람의 성령의 위로하심을 경험한 앞 장들의 이야기들을 매끄럽게 결론을 지을 수 있도록 작사가 된 곡을 선택하였다. 가스펠은 작사자가 이미 충분한 은혜를 경험하고 썼기 때문에, 가사를 표현하는 몸짓으로 표현하는 기독교 무용창작 안무 곡으로는 다른 장르의 음악보다 접근성이 좋아서 관객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함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3.3.4 의상

무대의상 안에는 시대마다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종교적 배경이 담겨 있다. 그리고 끊임없는 변화와 다양성이 내재 되어 있다. 무대의상은 공연의 일부로서 작품의 주제와 해석에 따라 소통 매체와 표현 도구로서 기능을 한다. 작품의 주제나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관객과의 상호소통에 효과적인 매체로 작용한다. 관객의 눈을 통해 감정과 영혼이 전달되어 상상력을 불러일으키

며 작품의 의미를 전달하고 상호 교감할 수 있게 한다.[35] 특히 무용공연을 위한 무대의상은 춤추는 데 걸림이 되지 않는 패턴과 재질 효과적인 움직임에 적합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사진 3-1] 무용수 1 의상(1장, 2장, 3장)

기독교 창작무용 「바람의 언덕」의 의상은 무용수 2인이 착용하고 있다. 무용수 1은 상실을 경험한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하여 흰색과 검은색이 혼합된 의상으로 상실의 마음을 상징하는 오브제 천과 흐름이 연결되도록 선택하였다. 하지만 전체적인 느낌은 검은색을 주요 포인트 색상으로 삼았는데, 검은색이 상징적 의미는 진중, 억압, 슬픔, 죽음, 공포 등이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므로 춤의 주제를 더욱 선명하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현대적 무용의 스타일과 음악의 흐름에 따라 작품의 의미와 주제를 전달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몸의 섬세한 움직임에 적합한 실크 느낌의 소재와 쉬폰 등으로 움직임에 따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재질을 선택했다. 검정 통 넓은 바지로 과감한 동작에 적합하게 제작했으며 그 위에 현대적 느낌이 원피스 스타일에 의상을 입었다. 상실의 상처 입은 자의 마음처럼 치마 밑단을 날카

35) 장혜숙. (2018). 『무대의상 디자인』. 서울: 도서출판 연극과인간. p.28.

로운 느낌으로 커팅한 디자인으로 작품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상의는 크롭 디자인에 옆을 길게 늘어지게 디자인함으로 움직임을 할 때 흔들림으로 감정적 주제를 전달하려고 의도했다.

[사진 3-2] 무용수 2 의상

3장에 성령의 바람을 표현하는 무용수가 하얀색의 상의와 하의를 입었는데, 하얀색은 순결, 안전, 선량함, 평화, 참신, 단순, 순수 등이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성경에서의 흰색은 대부분 하나님과 연관되어 사용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 위엄, 거룩함 등 깊은 영적 의미를 지니므로 신학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성령을 상징하는 무용수에게 하얀색 저고리와 하얀색 치마 의상을 입고 바람 같은 움직임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시고 위로해주시는 성령님을 표현하였다.

[사진3-3] 무용수 1 의상(4장)

4장의 의상은 상실 경험 무용수의 믿음이 눈이 열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기쁨으로 표현하였다. 상실이 인생에서 한 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기에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주제의 의미를 전달하려고 했다. 한국 무용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긴 치마를 착용하고 흰색을 주요 포인트 색상으로 선택하여 주님 안에서 긍정적 내면의 변화로 인한 감정을 나타냈다. 상실의 아픔이 인생에 다시 찾아온다 해도 이제는 단단히 서서 주님만을 바라보겠다는 주제의 의미를 표현하였다.

[표 3-3] 무용 작품에서 색상의 상징적 의미

색상	상징적 의미
하얀색	순결, 숭고, 안전, 선량함, 평화, 참신, 단순, 순수, 깨끗
검정색	진중, 억압, 슬픔, 힘, 죽음, 공포, 보수적, 두려움, 권위

3.3.5 조명

조명은 빛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빛으로 표현해서 시간, 공간, 감정을 관객에게 전달하는 도구이기에 조명을 연출할 때 무대 공간과 조명의 방향, 조명의 밝기, 분포, 움직임, 색깔을 이해해야 한다. 조명은 무대의 공간과 분위기를 연출하고, 무용수의 동작과 감정을 설득력 있고 효과적으로 보이게 하여 관객들이 몰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조명의 최종목적은 감정과 생각 즉 작품의 주제와 의미 전달이다.[36] 기독교 창작 작품「바람의 언덕」에서는 다크 블루, 다크 엠버, 황색, 시안, 마젠다 등을 배경조명으로 Top 조명과 Back 조명, Side 조명 그리고 Front 조명을 사용하였다.

[표 3-4] 색채조명의 이미지 및 감정 표현

색상	색채조명의 일반적 이미지	작품에서의 감정 표현
Dark Blue	좌절, 슬픔, 심오함, 밤, 두려움,	슬픔, 절망, 두려움,
Dark Amber	위압, 비관, 방종, 의존, 피상,	분노, 위협, 반항, 거부
SunsetOrange	지혜, 통찰력, 불안,	무기력, 생각이 많음
Cyan	하늘, 희망, 숭고, 심오, 영원,	순수, 깨끗, 거룩, 평화
Magenta	행복, 환희, 낭만, 따스함	소망, 밝음, 행복, 회복

1장 조명은 Dark Blue를 사용하여 상실 경험의 슬픔과 절망의 감정을 전달하였다. Dark Blue는 밤, 좌절, 슬픔, 심오함의 이미지가 있어 차갑고 두려우며 불안한 심리를 표현하는 무용수의 감정이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하였다. 무대 전체가 아닌 무용수 주변만 진하게 사용하여 집중력을 높이게 했다. 움직임에 따라 조명반경이 넓어졌으며 조도를 높였다. 자신의 마음 안에 갇히는 부분은 Top 조명과 함께 LED Spot 조명기기에 고보를 장착하여 빛에 무늬를 넣도록 만들었다. 이는 무용수의 움직임이 크게 보이는 효과를 냄으로써

36) 허준. (2023). 『미디어 조명 디자인』. 경기도 : ㈜ 페스트북. p.58.

복잡한 심리 상태가 관객들이 이해되도록 하였다.

1장 후반부 시작은 front 포인트 조명을 북소리 음향에 따라 켰다 끄는 연출을 하므로 장면 전환이 이루어짐을 표현했다. 분노를 표출하는 조명은 Dark Amber(Yellow + Red)로 어두운 '黃색' 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성실하지 않음, 피상적, 의존적, 위압적, 방종적, 과시적, 비관적, 예측할 수 없음을 상징하는 조명색을 통해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기에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다. 양쪽 side 조명을 통해 격렬한 몸의 움직임이 잘 드러나게 했으며, LED wash 조명기기로 넓고 고르게 전체 배경조명으로 격렬한 움직임이 잘 보이도록 했다. 또 포그 조명으로 넓게 무대를 채색하여 효율을 높였으며, 작품이 전개와 발단, 위기의 구성을 점차 채도와 조도를 낮추며 변화를 예시하였다.

2장 탄식의 바람을 표현하기 위한 조명은 석양이 지는 듯한 Sunset Orange 조명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각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떠올리도록 구성하였다. 지혜, 통찰력, 불안을 표현하는 색채조명의 의미를 작품의 주제와 연결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픔을 토로하며 도움을 구하는 절실한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배경조명을 끄고 Top 조명만을 사용하므로 몰입감에 중점을 두었으며, 관객들에게도 작품에서 의도하고 있는 주제가 섬세하게 이해되도록 표현을 의도하여 사용하였다.

3장의 조명은 Cyan (Blue + Green)을 의도했다. Cyan은 하늘, 희망, 기쁨, 숭고함, 심오함, 영원을 나타내며 Blue 계열 중 가장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바람의 성령을 표현하는 무용수가 순수, 깨끗함, 정결, 거룩, 평화 등이 의미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조명이 이런 주제에 맞는 흐름을 잘 표현해줌으로써 관객의 이해를 도왔다. 그 밖의 다른 조명 효과를 배제함으로 하얀색의 의상이 더 신비스럽게 보이도록 하여 천사같이 깨끗한 이미지와 함께 천상이 느낌을 표현하였다.

4장 앞장 Blue 계열 조명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Magenta는 Violet과 Pink의 경계에서 모호한데, 명도가 높으면 Pink, 채도가 낮으면 Violet으로 인식하는 색이다. Magenta는 로맨스, 낭만, 에로틱한 느낌을 주며 따스하고 행복한 온기를 주는 색이다. 상실의 아픔이 소망으로 변화되는 내용으로 구성된 주제 표현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다. Violet 색상에서 포그 조명 효과와

더불어 점점 Pink로 바뀌며 Gobo LED Spot 조명으로 더 밝은 희복의 에너지를 표현함으로 관객들에게 작품에 대한 주제와 의미를 전달하였다. 계획되지 않은 조명의 변화는 무용수뿐 아니라 관객까지 당황하게 할 수 있다. 또 무용보다 조명에 더 주목하게 되는 것 또한 옳지 않다. 따라서 조명은 무용과 조명이 적절하게 조화되도록 해야 하며, 무용공연에서 조명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3.3.6 무대 공간 사용

무용은 공간 인식과 몸의 움직임 및 표현력의 활용으로 이루어지는 예술이다. 안무가는 무대라는 공간 안에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달하고 그 공간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다. 안무가가 작품을 시연할 때 무대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느낌이나 전달되는 감정이 달라지며 감정선, 내용, 주제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무용에서 무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작품 주제와 의도를 잘 전달할 수 있게 한다. 기독교 창작 작품「바람의 언덕」은 양재 M 극장에서 시연되었다. M 극장의 무대는 프로시니엄 형태로 무대 구분은 [표 3-5]와 같이 구역을 구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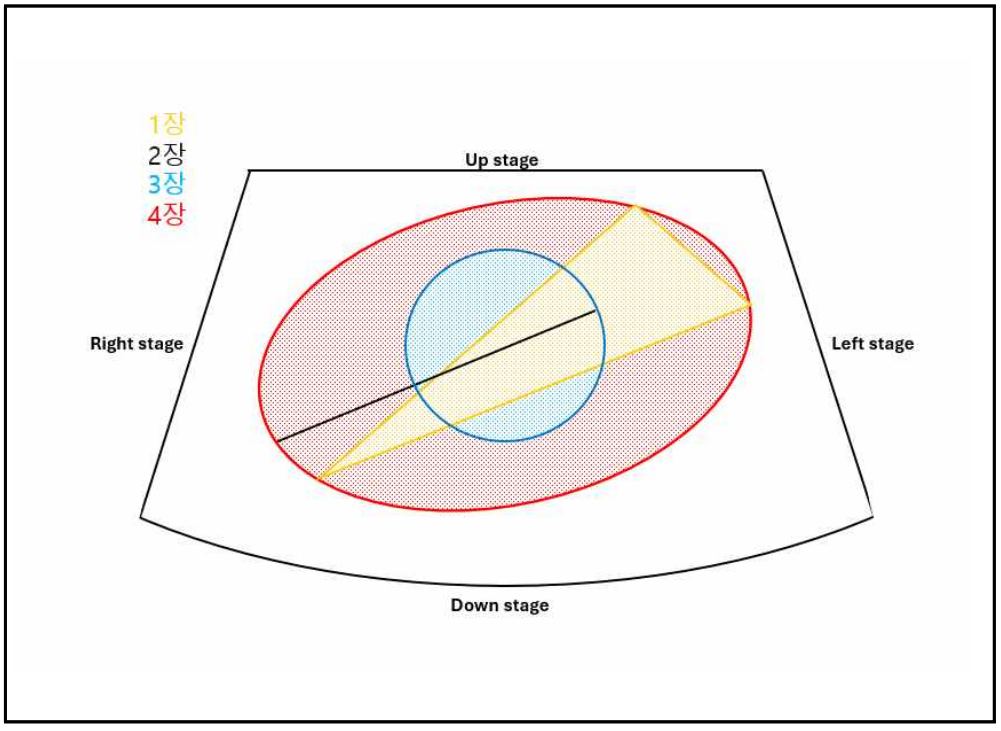
[표 3-5] 프로시니엄 무대(Proscenium Arch Stage) 구역 구분[37)]

하	USR Up Stage Right	USC Up Stage Center	USL Up Stage Left	상
	CSR Center Stage Right	CS center Stage	CSL center Stage Left	
수	DSR Down Stage Right	DSC Down Stage Center	DSL Down Stage Left	수

1장은 하수(CSR)를 시작점으로 하수(DSR)에서 사선 상수(CSL)로 그리고 무대 중앙인 CS에서 전반부 무대 공간 사용하였다. 후반부는 중앙(CS)에서 상수(CSL)로 그리고 직선 공간 사용으로 하수(DSR)에서 중앙(USC)에서 중앙(DSC)로 무대 사용을 했다. 상수(USL)에서 하수(DSR)로 무대 공간을 사용

37) 김윤식. (2011). 『무대감독』. 서울 : 연극과 인간. p. 71.

하였다. 2장은 하수(DSR)에서 사선으로 상수(USL)로 중앙(CS)의 공간 사용을 했다. 3장은 무용수 1은 중앙(CS)를 무용수 2는 하수(USR)에서 시작하여 반원으로 상수(CSL)로 연결하고 무용수 1이 퇴장 후 상수(USL)에서 하수(DSR)로 동선을 사용하고 무대 전체 공간을 원으로 사용했다. 4장은 하수(USR)에서 사선으로 상수(DSL) 그리고 중앙(CS)에서 무용의 움직임이 무대 공간을 사용하여 전체 무대 공간을 사용하였다.



[그림 3-4] 작품에서의 무대 사용

Ⅳ. 작품 분석

제목 : 바람의 언덕 (The Hill of Wind)
안무 및 연출 : 한행선
출연 : 한행선, 최슬기
구성 : 총 4장
음악 : 1장 “Prisoner of Darkness”, “Blame on You”
2장 음성음향 (시편 102편), “Unreachable”
3장 “Secret Wind Chimes”
4장 “바람이 불면” (이권희 작사, 작곡)
발표 일시 : 2024년 11월 18일 (월) PM 7시
발표 장소 : 양재 M 극장
작품 시간 : 총 11분 50초

4.1 제1장 : 상실의 바람

4.1.1 주제 및 내용

인생에 불현듯 찾아온 상실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준다. 떨쳐내려 하면 할수록 아픔과 고통은 한없이 마음 깊은 슬픔 속으로 잠식하게 한다.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은 다른 대상을 향한 분노와 원망이 격한 감정들로 표출되는 상실의 고통을 주제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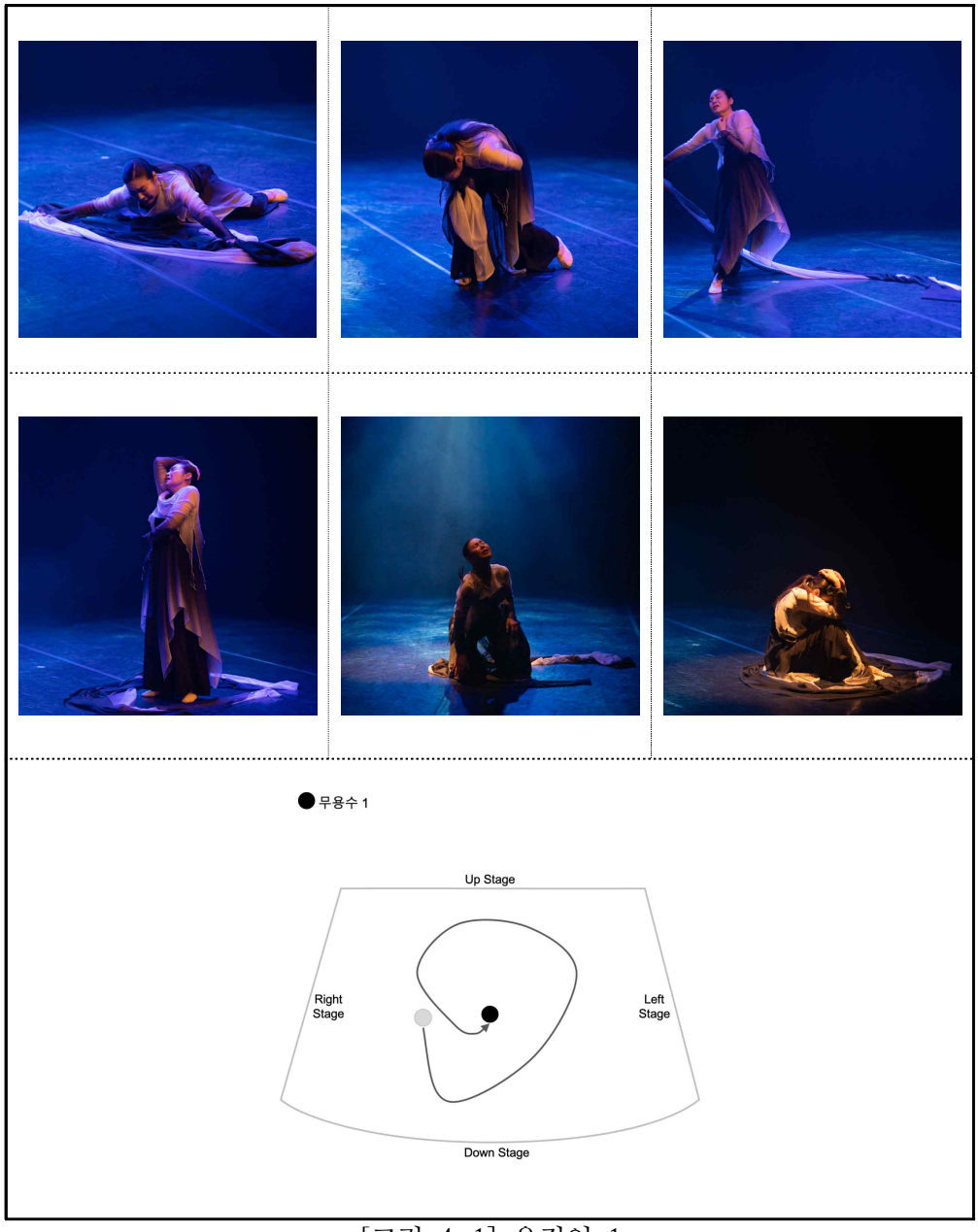
상실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절한 단어는 무엇일까? 라는 답으로 ‘끝’이라고 결론지었다. 살을 에우는 차가운 겨울바람처럼 어느 날, 평생 다니던 직장을 잃거나, 암 진단을 받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평생 소망하던 꿈이 좌절 등 언제든지 인생에 찾아올 수 있는 상실 경험이다. 이렇게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되는 상실은 누구도 원치 않으며 인생에서 밀어내고 싶어 한다. 그러나

슬픔을 밀어내려 몸부림을 칠수록 마음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고통의 늪으로 더 깊이 빠져들어만 간다.

현실을 자각하게 되자 너무도 억울하고 화가 치밀어 오른다. 왜? 왜 하필이면 난데? 내가 뭘 그리 잘못했는데? 세상은 조용한데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라는 감정들로 딱히 누군가를 지목하기보다는 누군가를 원망하고 탓하지 않으면 숨을 쉬지 못할 것만 같은 감정들이 솟구쳐 밖으로 분출되어 나온다. 이에 더해 영적 시야마저 흐려지니 하나님마저 나를 잊어버린 것만 같은 서운함이 들어 갈등과 혼란으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다.

4.1.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무대 하수(CSR)에서 상실로 인해 두려움과 불안감이 엄습하며 하수(DSR) 공간에서 상실을 부정하는 내적 심리적 충격의 감정을 표현한다.



[그림 4-1] 움직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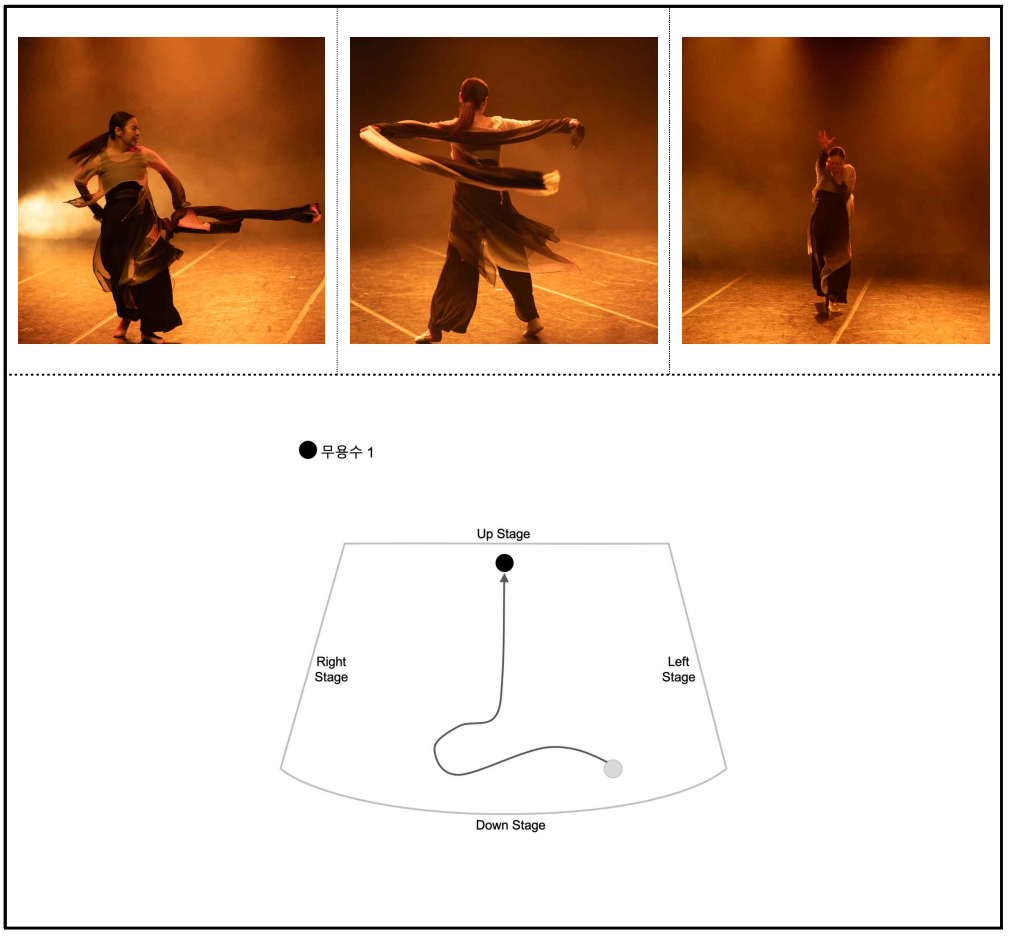
상실의 아픈 마음을 표현하는 오브제를 밀어내고 당기는 반복의 동작과 오브제를 길게 내던져도 끊어낼 수 없어서 아파하는 감정을 하수(DSR)에서 상수(USL) 사선의 움직임으로 표현하였다. 중앙(USC)를 지나 중앙(CS)의 위

치에서 오브제로 만든 작은 원 안에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아걸며, 좁은 공간 안에서 돌고 있는 움직임은 우리에 갇힌 듯한 깊은 슬픔의 감정을 표현하며 오브제로 몸을 가리는 행위로 세상과의 단절을 표현하였다.

중앙(CS)에서 북소리 음향으로 변화를 예고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자신의 현실에 대한 강한 분노가 표출된다. 몸의 움직임도 손과 발을 바닥에 치며 조명 또한 front에서 강한 빛으로 끊어 빛을 내므로 감정이 격하게 끓어오름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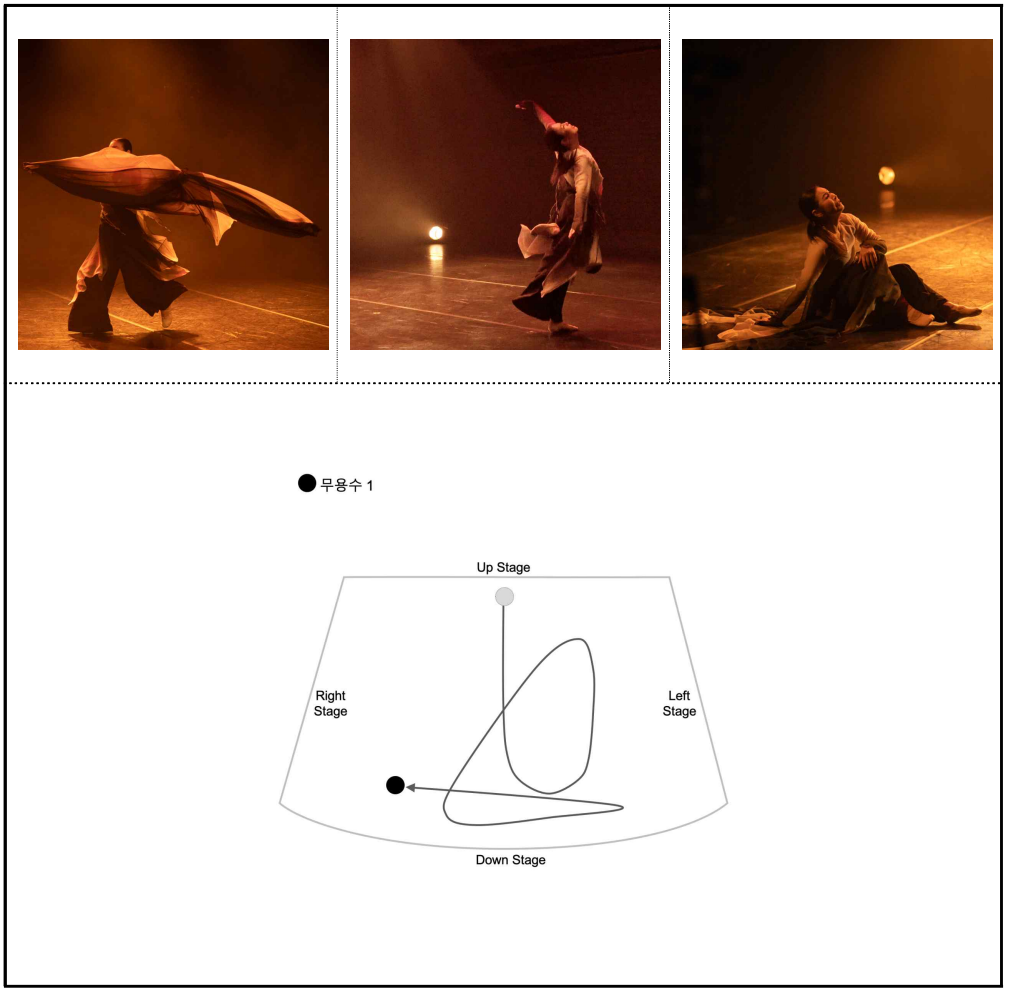
[그림 4-2] 움직임 2

상수(USL)에서 상수(DSL) 동선을 사용하고, 첼로 연주 음악은 슬픔이 깊이를 더하며 무용수의 감정 표현에 에너지를 합친다. 무용수가 오브제를 뿌리치는 동작은 나의 잘못이 아니고 당신들 탓이라는 감정이 표출되는 표현이다.



[그림 4-3] 움직임 3

분노의 감정이 점점 격해지면서 상수(DSL)에서 하수(DSR)로 수평 이동을 하고, 오브제를 던지며 아직도 수용할 수 없는 상실에 대한 원망의 감정으로 표현한다. 중앙(USC)의 동선으로 빠른 박자에 빠른 움직임으로 무대 공간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아픔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였다.



[그림 4-4] 움직임 4

분노의 감정이 최고조를 이루며, 중앙(USC)에서 중앙(DSC) 동선을 사용하고 상수(USL)에서 오브제를 허공에 치고 넓은 반경의 턴을 돌며 단숨에 하수(DSR)로 동선을 사용한다. 음악 또한 극한의 감정을 표현하고 오브제를 놓고 중앙(DSC)에서 상수(DSL)로 또 하수(DSR)의 동선을 빠르고 강한 움직임으로 긴장감과 큰 몸의 움직임을 통해 무대 전체를 사용하며 감정을 표출하였다.

4.1.3 음악 및 오브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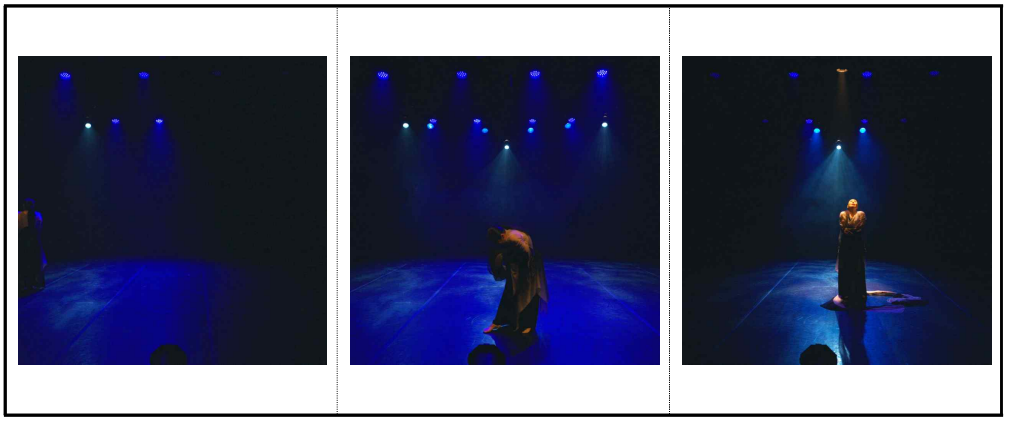
1장의 음악은 겨울바람 음향효과와 '당신은 이제 끝입니다'라는 음성효과로 작품의 실마리가 제시되는 발단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여러 장르의 음악들을 전문으로 작곡하는 'BGM Presidenr'가 작곡한 "Prisoner of Darkness"로 작품이 상실로 인한 슬픔이 전개를 구성하였다. 음악의 제목처럼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내적 심리를 움직임과 음악을 통해 갈등을 표현했다. 연결 구간에 북소리 음향을 사용하여 무용수의 감정변화가 있음을 예고하고 '나단 뮤직'의 "Blame on You" 곡을 통해 심리적 갈등이 더 깊어지고 있음을 표현했다. 묵직한 첼로 연주곡에 현대 무용의 움직임으로 상실의 부정과 슬픔은 더 깊어지고 있다. 생각을 거듭할수록 상실에 대한 억울한 감정이 생기며 왜? 나야! 이 상황은 '너 때문이야'라는 음악을 통해 다른 대상을 향한 원망과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여 관객들에게 감정 전달을 하였다.

오브제는 흰색과 검은색의 혼합된 긴 천으로 상실 경험자의 내적 심리의 상처를 상징한다. 1장에서 '당신은 이제 끝입니다'라는 통보를 듣고 심장이 멈추는 것같이 무용수의 손에서 오브제를 떨어뜨리므로 상실의 충격을 표현하였다. 무용수는 오브제를 다시 움켜 모으며 마음을 추스르며 자신에게 일어난 현실을 부인하는 움직임을 하였다. 오브제는 밀고 던지며 현실에서 멀어지고픈 메시지를 전했고 원으로 만든 오브제 안에서의 움직임은 슬픔의 깊이를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분노가 표출되며 사용된 오브제는 허공에 치고 던지는 움직임을 통해 날카롭고 부정적인 심리 상태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사진 4-1] 오브제. 4M 긴 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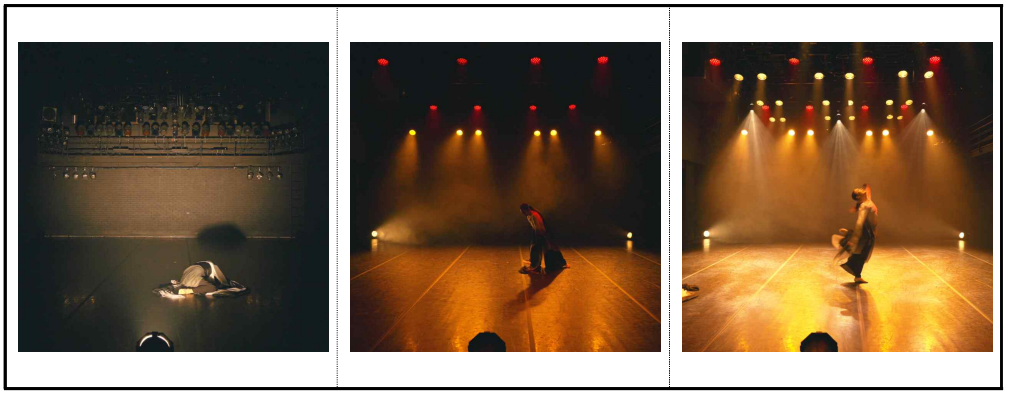
4.1.4 무대장치 및 조명

1장의 조명은 Dark Blue와 Dark Amber를 배경조명으로 사용하였으며, Top 조명과 LED Spot 기기를 사용했다. Front 조명과 Side 조명 효과를 통해 인물을 부각하는 조명을 포인트로 했다. Dark Blue는 상실의 슬픔과 절망 등이 감정과 이미지가 있어서 무용수의 두렵고 불안한 심리를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하였다. 무대 전체가 아닌 무용수를 중심으로 LED wash 조명 효과로 집중력을 높이게 했다. LED Spot 조명에 Gobo를 장착하여 빛에 무늬를 넣으므로 심리 상태가 혼란스러움을 표현했다.



[사진 4-2] 조명 1

후반부는 Front 조명을 북소리 효과에 따라 켰다 껐다 반복하는 연출을 통해 장면 전환을 예시했다. Dark Amber(황색)는 위압, 과시, 비관, 피상 등을 의미하고 있어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효과적이라 생각하였다. 조명을 넓고 고르게 전체 배경을 주고 Side 조명을 통해 격렬한 표현을 하는 무용수의 움직임이 잘 보이도록 하였다. 작품의 전개와 위기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조명의 채도와 조도 변화를 통해 주제가 표현되도록 하였다.



[사진 4-3] 조명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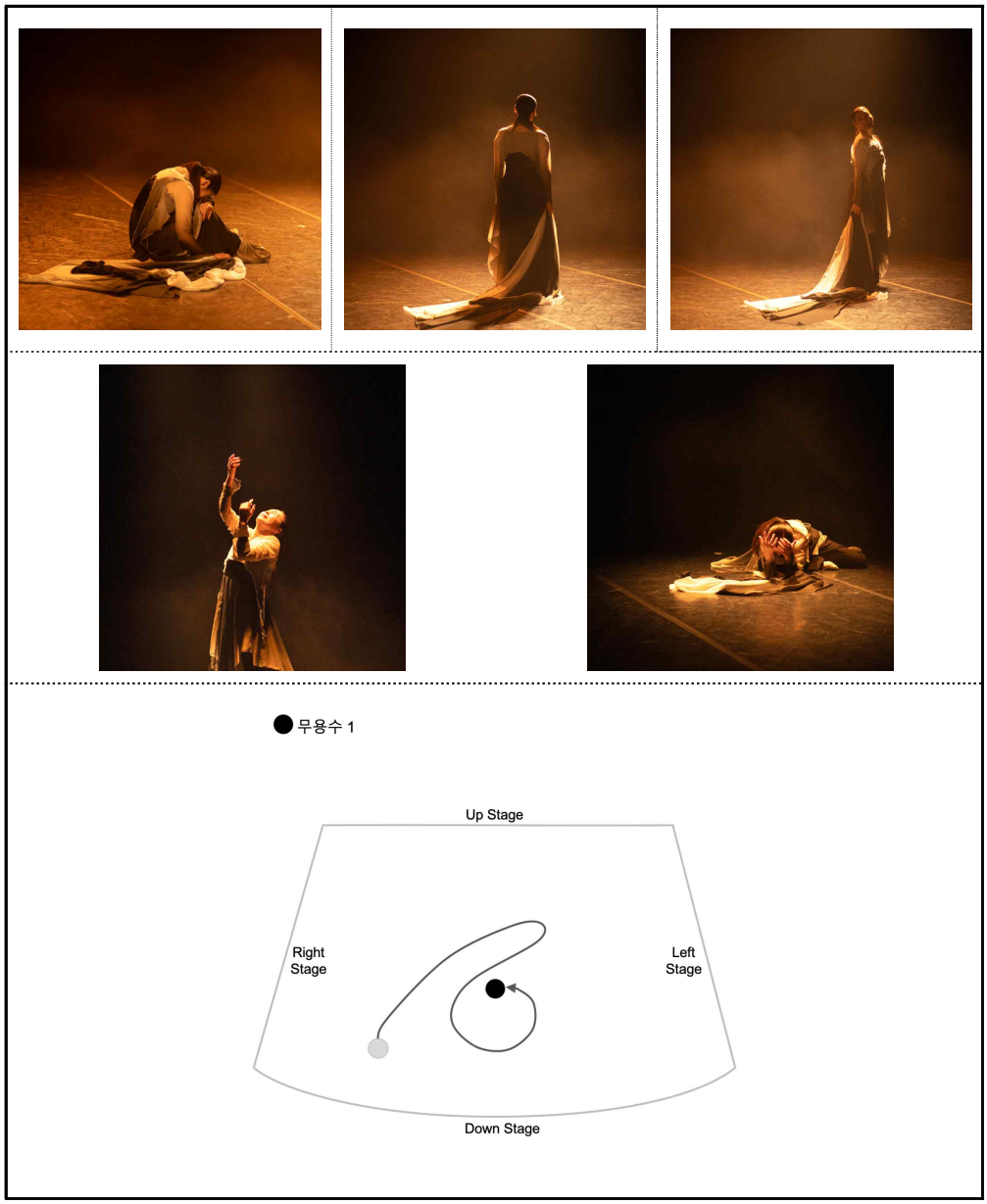
4.2 제2장 : 탄식의 바람

4.2.1 주제 및 내용

상실의 슬픔은 영적 시야를 흐려지게 하여 현실을 부정하고 원망하며 분노해도 혼란스러운 감정이 정리되지 않는다. 벗어나려 할수록 옥죄어 오는 감정 앞에 의지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는다. 문득 상실로 인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졌던 하나님을 기억한다. 삶에 언제나 함께하셨던 하나님은 신실하셨고 그 인자하심이 변함이 없었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 탄식으로 자신의 처지를 간구하며 눈물로 하나님을 갈망한다. 영혼의 깊은 밤을 맞을 때 자신에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찬송하게 되리라는 소망을 품고 상실의 고통을 인지하며 애도한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눈물로 시편의 대표적인 탄원 시인 102편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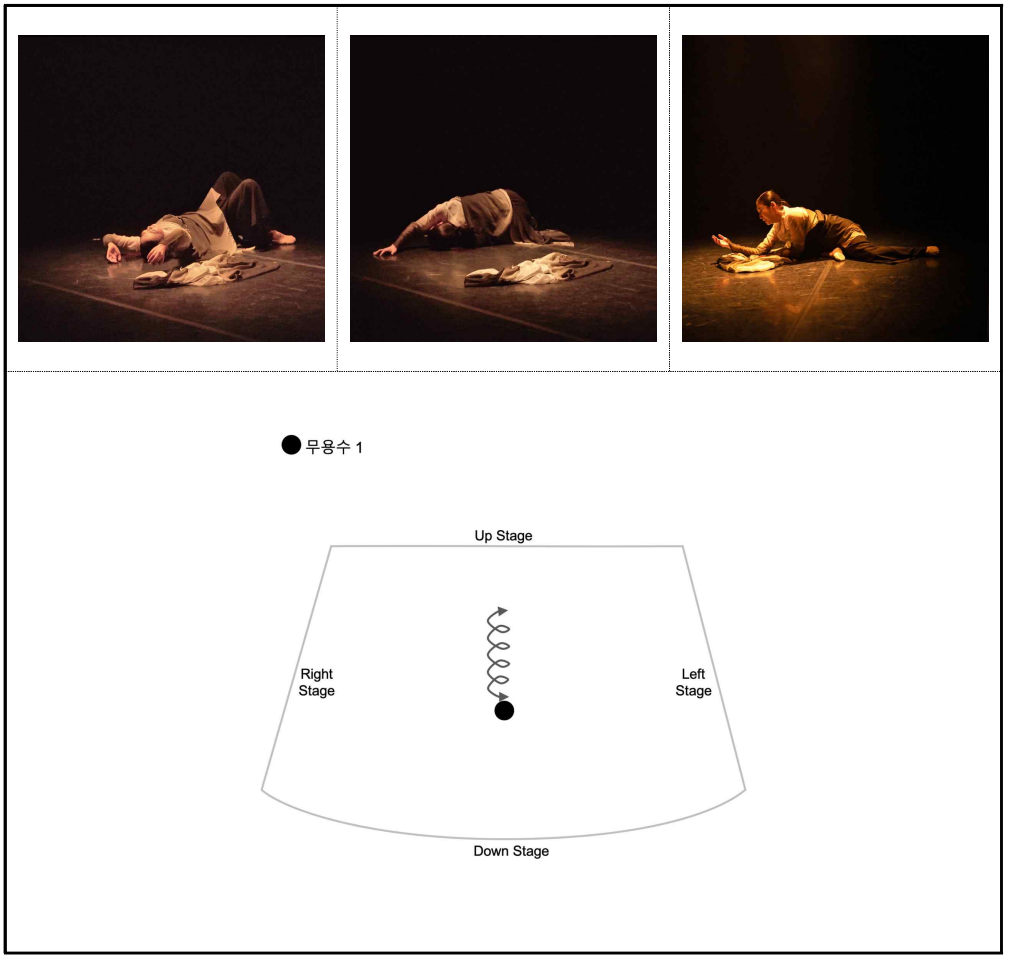
4.2.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하수(DSL)에 앉았던 무용수가 무음인 상태로 상수(USL)을 향해 오브제를 손에 잡은 상태로 끌며 걸어간다. 상수(USL)에서 무언가를 떠올린 듯 하늘을 쳐다보며 움직임이 속도가 가속되며 원을 그리는 움직임으로 CS로 들어온다.



[그림 4-5] 움직임 5

중앙(CS) 공간에서 탄식의 기도를 올리는 모습으로 오브제와 함께 수축과 이완이 움직임으로 감정을 표현한다. 초대 교회 교부들이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하듯이 서고 앉고 웅크리며 절규하는 움직임으로 절절함을 표현한다.



[그림 4-6] 움직임 6

자신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USC(중앙위) 공간으로 뒹구는 움직임을 통해 감정 표현을 극대화한다. 음악이 흘러나오며 머리를 무릎에 박아 흐느끼는 움직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움직임을 모방하여 하나님을 향한 절절한 갈망을 표현했다.

4.2.3 음악 및 오브제

2장은 무음의 움직임으로 표현하다가 시편 102편의 탄식 시를 음성언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구성이다. 그리고 'Note Pencil'의 "Unreachable"(갈 곳 잃은 소녀)로 작품에서 흐르는 절절하고 슬픈 감성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연약한 자임을 말하며 기도하는 무용수의 감성을 이 음악으로 더 깊은 감정선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었다.

오브제는 1장과 동일하게 사용함으로 연결감을 가지게 하였고, 기도하는 동작에 오브제를 활용함으로 감정의 흐름을 더 강화하는 도구로의 기능을 하였다.

시편 102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자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 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 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 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
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의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재를 양식 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4.2.4 무대장치 및 조명

2장 조명은 석양이 지는 듯한 Sunset Orange 조명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자각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떠올리도록 구성하였다. 통찰, 불안을 표현하는 색

채조명이 의미를 작품의 주제와 연결하였다. 사선으로 걸어갈 때 상수(USL) 상부 Side 조명을 사용하여 생각하는 느낌을 연출하였다. 원의 움직임에서 배경조명의 조도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자신의 아픔을 토로하는 기도하는 표현에서는 상부 Top 조명만을 사용하므로 몰입을 유도했다. Top 조명은 주제를 강하게 부각할 때 사용하여 관객들에게 작품의 의도하는 바를 섬세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해 사용하였다.

[사진 4-4] 조명 3

4.3 제3장 : 성령의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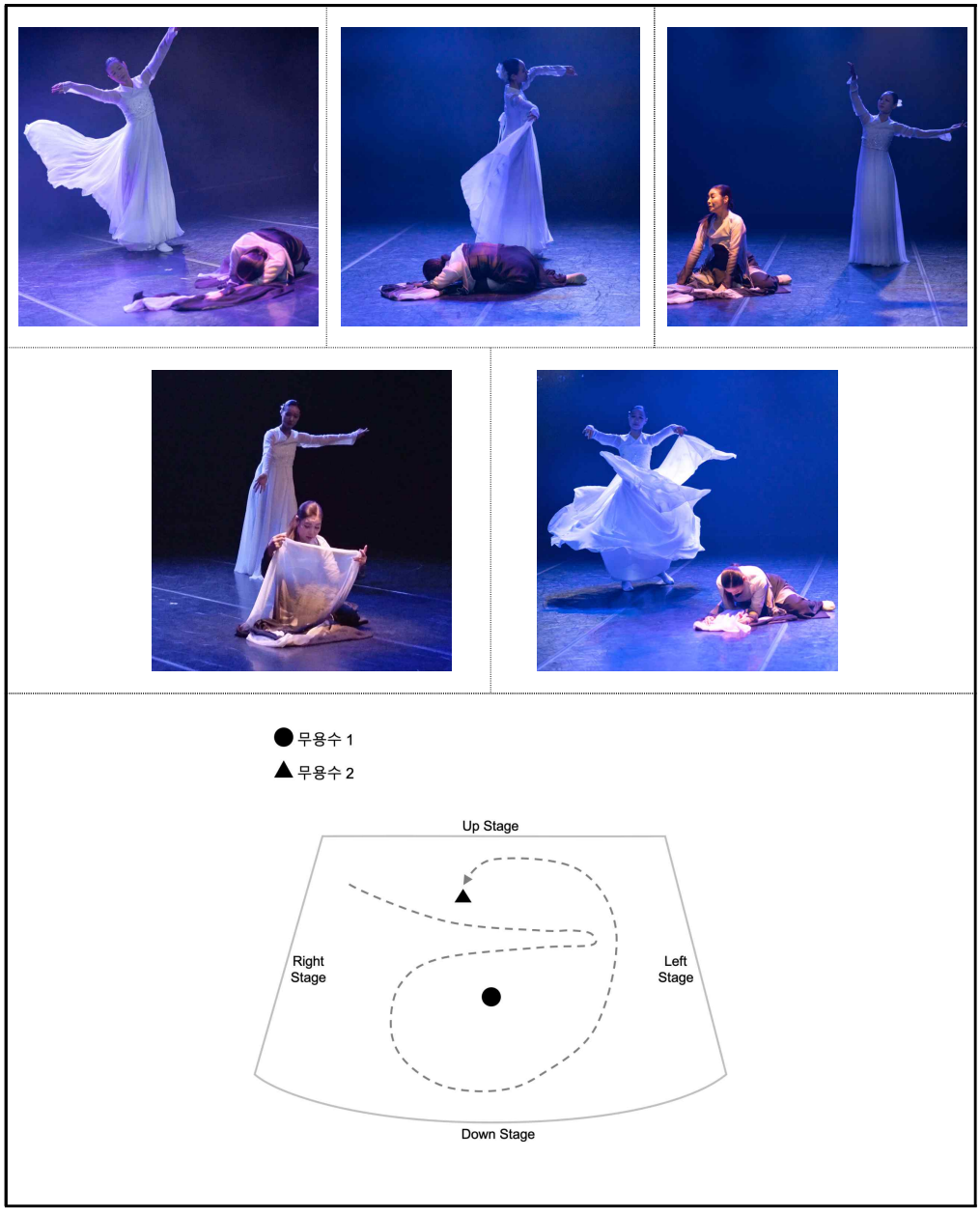
4.3.1 주제 및 내용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지친 영혼에게 바람을 타고 주의 성령이 임한다. 상심한 마음을 어루만지면 내가 바다 끝에 거하거나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어디서나 함께 하겠다는 성경에 약속을 기억하라고 하듯이 한없는 위로와 평안으로 도우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감당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의 구할 바를 중보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마음에 힘을 얻고 회복으로 나아간다. 오브제의 흰색 부분을 들어 올려 검은색 부분을 감싸는 동작을 통해 성령님께서 만지셨음을 시

사하며 무용수 1은 무대에서 퇴장하고 무용수 2는 우리의 회복을 기뻐하며 춤을 춘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도덕적 정결을 부여하고 진리로 인도하시며, 무엇보다 마음을 새롭고 정결케 해주신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26). 3장의 주제는 상실의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은 자신의 노력과 의지보다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삶에 새로운 변화와 회복이 이루어짐을 말하고자 하였다.

4.3.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3장은 무용수 1은 중앙(CS)에 엎드려 있고 무용수 2는 무대로 나와 전체 공간을 돌며 무용수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힘을 주는 움직임을 한다. 무용수 1은 무용수 2를 시각이 아닌 영으로 느끼는 연출과 움직임을 구성하였다. 의상을 이용해 천사의 날개 같은 움직임으로 관객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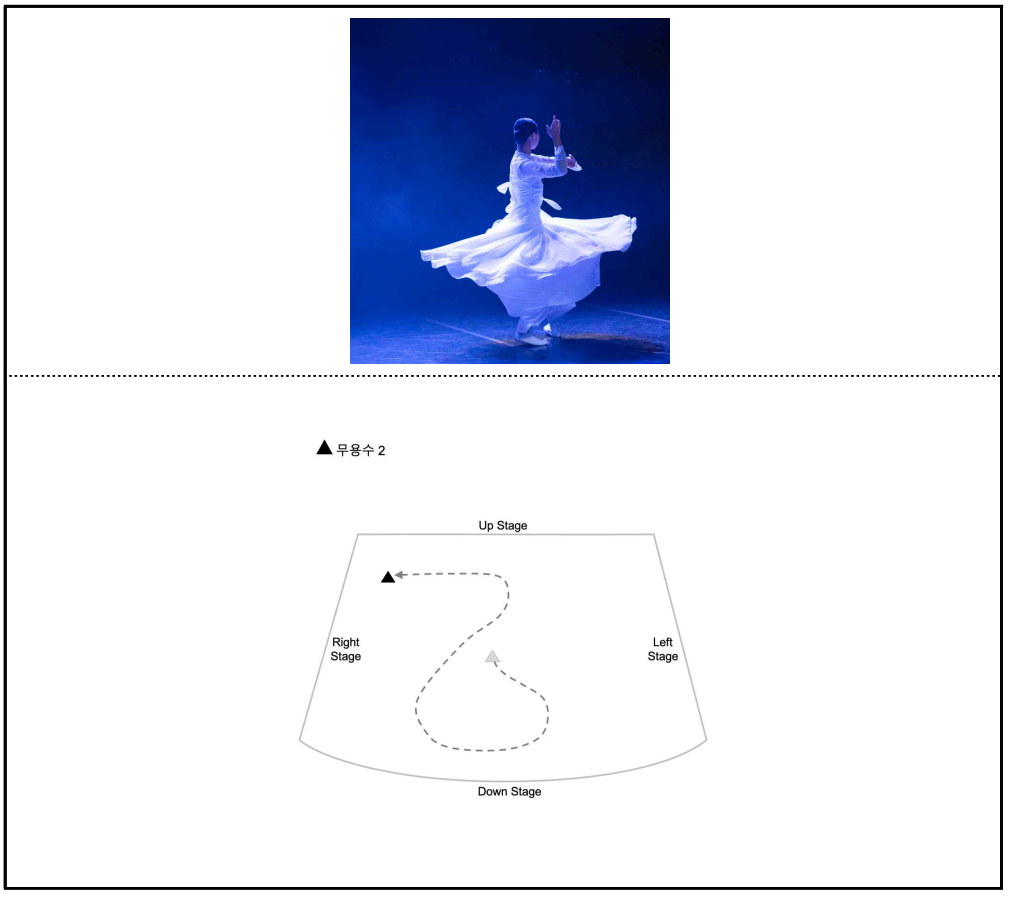
[그림 4-7] 움직임 7

한국 무용의 잔걸음으로 무대 위를 미끄러지듯이 움직이므로 마치 날아다니는 듯한 효과를 표현한다. 한국 무용의 곡선과 호흡이 조화를 이루어 무용수 1 주위를 천사처럼 치마를 치며 움직임을 하고 따뜻한 표정과 감성으로

관객들에게도 큰 위로의 감성을 전한다.

[그림 4-8] 움직임 8

중앙(DS)에 있던 무용수 1은 무용수 2의 움직임에 힘입어 일어나 주위를 돌아보며 하수 공간을 이용하여 퇴장했다. 무용수 2는 더 크고 넓은 움직임과 무대 공간을 사용하여 아름답고 치유가 되는 위로와 평안을 표현하였다.



[그림 4-9] 움직임 9

4.3.3 음악 및 오브제

3장은 'Relaxing Music Films'에서 제작한 "Secret Wind Chimes" 음악으로 표현하였다. 이 음악은 바람이 흐름에 따라 움직이며 소리를 내는 wind bell로 우리는 '풍경'이라고 부른다. 이 소리에 자연의 음향들을 효과음으로 사용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Healing 해줌으로 치료 음악으로도 쓰이고 있다. 성경에서 우리는 성령님을 바람 같은 성령으로 묘사한다. 바람은 형체가 없지만 에너지가 있어 사물을 움직이게 한다. 성령님은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심을 이 음악을 통해 표현하고 전달하였다.

무용수 1의 오브제는 흰색과 검은색이 혼합된 앞장과 같은 오브제로 흰색 바탕을 올리는 동작을 통해 상실의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표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제 표현에 중요한 요소의 역할을 했다. 무용수 2의 오브제는 흰색 깃털 핀이다.

[사진 4-5] 오브제. 깃털 핀

이는 성경에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다는 말씀에 의한 오브제이다. 비둘기는 순결과 완전무결의 상징으로 예수님께 부어진 영이 거룩하고 죄 없는 영임을 의미하므로 오브제로 사용되었다. 성경 속의 색채가 상징하는 하얀색은 하나님의 거룩함 곧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다.

4.3.4. 무대장치 및 조명

3장의 조명은 Cyan (Blue + Green)을 사용했다. Cyan은 하늘, 희망, 기쁨, 숭고함을 의미하며 Blue 계열 중 가장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성령님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색채라 선택했으며, 성령을 표현하는 무용수가 순수, 정결, 거룩, 평화의 의미를 표현하고 움직임을 할 때 조명이 효과로 표현이 배가 되었다. 조명이 주제에 맞는 흐름을 잘 이끌어줌으로 관객들이 작품 이해에 도움을 주었다. 그 밖의 다른 조명 효과를 배제함으로 하얀색의 의상이 더 신비로움을 연출할 수 있었으며 천사같이 깨끗한 이미지와 함께 천상에 느낌을 표현하였다.

[사진 4-6] 조명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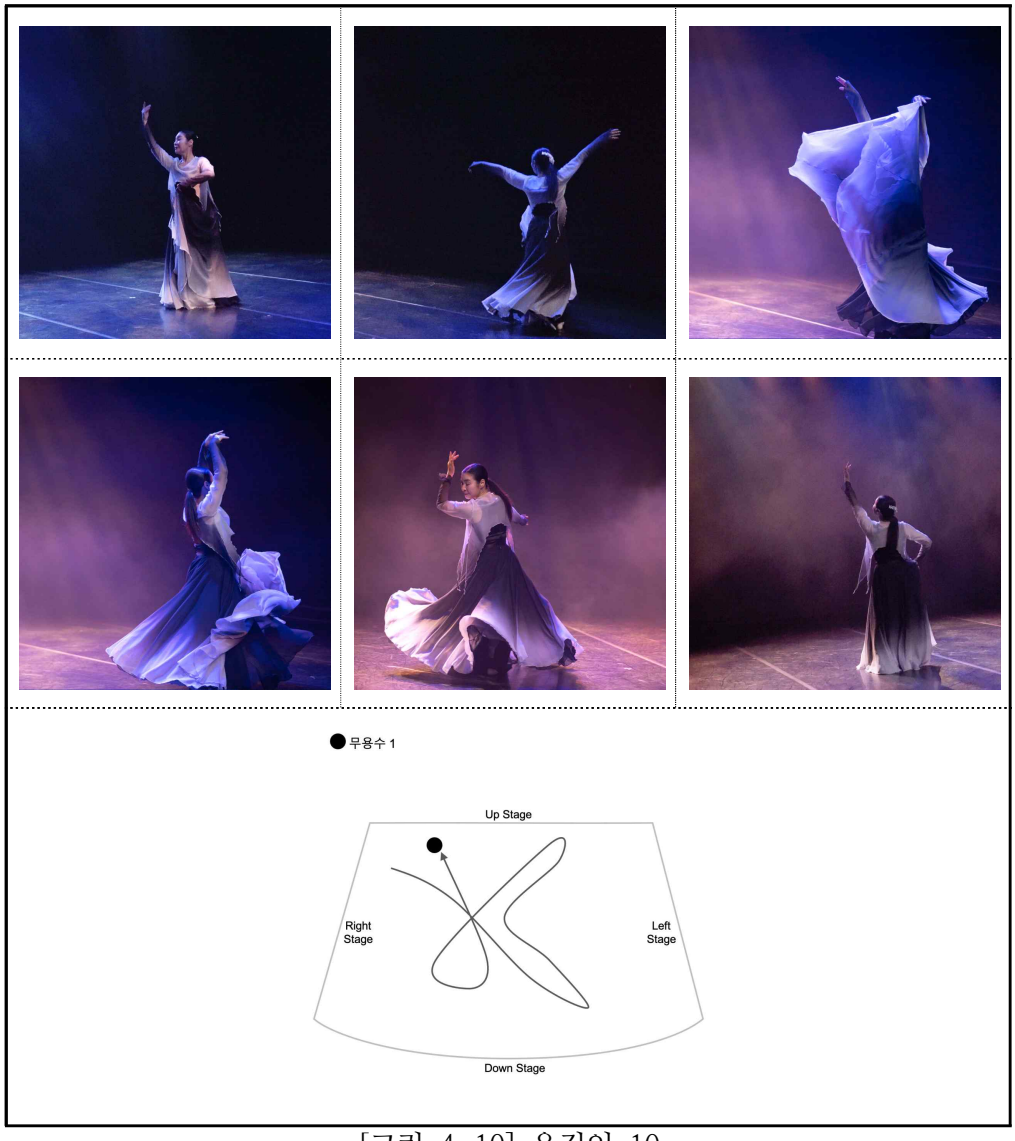
4.4 제4장 : 소망의 바람

4.4.1 주제 및 내용

위로의 성령님으로 인해 닫혔던 믿음의 눈이 열리며 하나님의 사랑이 바람을 타고 마음 안으로 들어온다. “바람의 불면” 곡을 통해 나의 아픔과 상실의 고통을 더 안타까워하며 나를 바라보셨을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이 심령에 차오른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태복음 11:28) 말씀 앞에 상실의 무게를 내려놓는다. 주님의 사랑과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평안함이 나를 감싸며 삶에 변화의 새바람이 불어온다.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셨으며 그 사랑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었는데, 세상에 홀로 남은 것만 같아 외롭고 아파했던 상실의 시간을 바람에 실려 보낸다.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이제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며 허락하신 날들에 대한 소망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을 오늘도 바라보며 살겠다고 다짐해 본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음을 감사하며 나의 삶에 의미를 새롭게 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겠다고 고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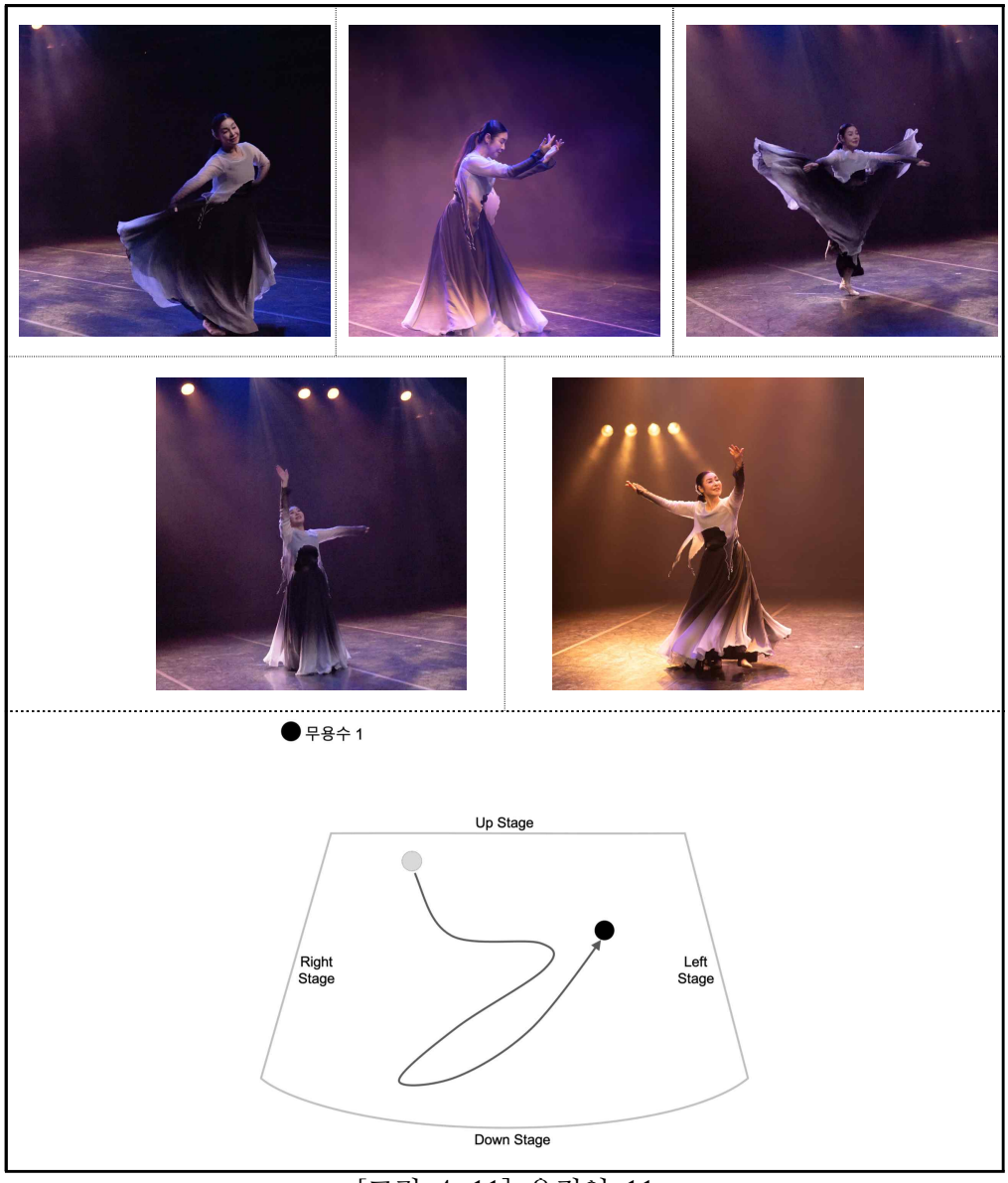
4.4.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4장은 가스펠로 곡을 표현하기 위해 한국 무용을 기반으로 움직임이 요소를 크게 확장하여 무대 공간 사용 범위도 넓게 구성하였다. 바람이 이끄는 듯한 동작으로 하수(USR)에서 중앙(CS) 그리고 하수(DSL)에서 중앙(CS)로 무대에서 동선이 확장되어 움직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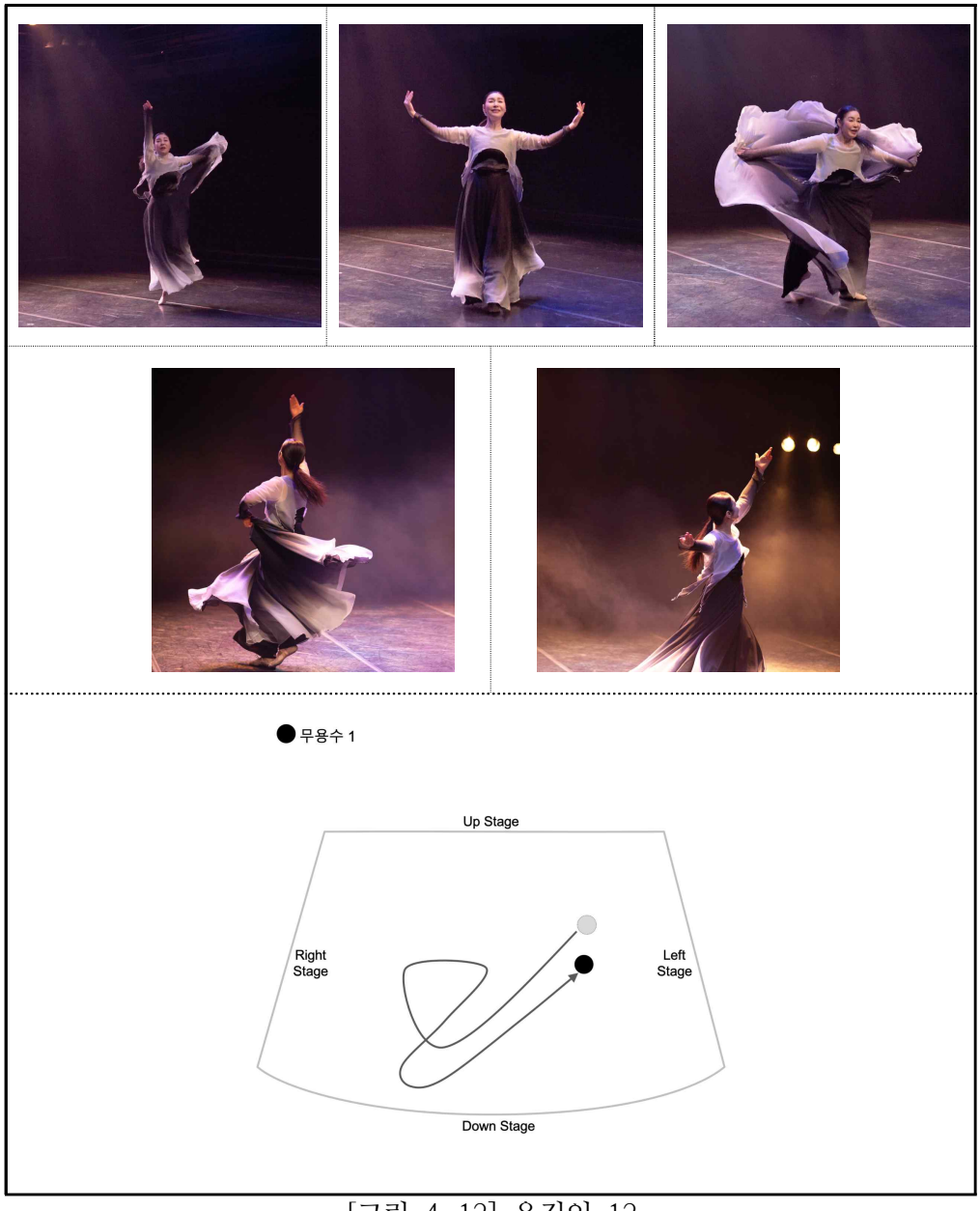
[그림 4-10] 움직임 10

바람이 불면이란 가사처럼 손목과 호흡으로 바람의 움직임을 한국 무용적인 움직임 스타일로 동선 이동한다. 귓가에 들리는 주님의 음성으로 심장이 뛰는 듯한 움직임과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에 치유됨을 표현했다.



[그림 4-11] 움직임 11

중앙(USC)에서 상수(USL)로 사선의 움직임으로 하수로 이동하고 중앙에서 하수로 무대 공간을 넓게 사용하니 안무 역시 큰 움직임과 호흡으로 표현되었다. 가사로 인하여 감성 표현이 풍성해지고 전달력도 있음이 가스펠이 주는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사랑의 노래가 흘러넘침을 표현했다. 신실하신 주님이 이끄심에 감사로 고백하는 움직임을 했다.



[그림 4-12] 움직임 12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힘입어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으며 감사로 살아가겠다는 의지와 결단을 표현한 움직임으로 표현하였다.

[그림 4-13] 움직임 13

무용수 2가 등장해서 무용수 1의 움직임을 함께 하여 모든 갈등은 해소되고 좋은 결말로 작품 전체 주제를 부가시켰다. 창작 한국 무용 구성인 4장은 한국 무용의 곡선적인 움직임을 바탕으로 현대 무용의 동작이 조화를 이루어 내면의 감성을 표현하였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선과 표정 그리고 움직임을 기독교 무용의 요소들로 표현했다. 영혼의 울림이 있는 깊은 표현으로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 있는 고백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4.4.3 음악 및 오브제

4장 음악은 이권희 작사, 작곡이며 박유라가 부른 '바람이 불면' 가스펠을 사용하였다. 가스펠은 가사를 통해 감정과 상황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음악은 앞장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매끄러운 결론을 전달할 수 있었다. 가사는 다음과 같다.

바람이 불면 내 귓가에 조용히 울려 퍼지는 주의 음성 들려
가슴이 뛰네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 전해지는 하늘의 음성 들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사랑의 노래가 흘러넘치네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네 나 오직 주님을 봅니다
주님은 신실하시며 그 사랑 영원하네
변치 않는 주의 말씀이 오늘도 이끄시네
생명을 내어준 사랑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오늘도 주님만을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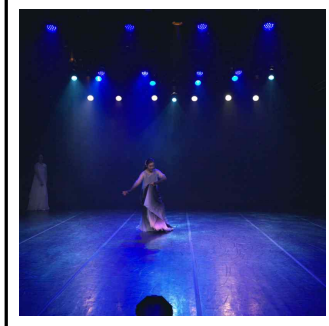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가슴이 다시 뛴다는 것이 그리고 그 안에 거함이 얼마나 큰 위로이며 감사인지 곡을 통해 감정과 느낌이 잘 표현되어 전달되었다. 생명을 내어준 사랑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가사는 인생의 상실 문제의 궁극적인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말하고 있다.

4장의 오브제는 흰 꽃핀이다. 상실의 아픔을 성령을 통해 영적, 육적 치유를 받고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회복되었다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삶의 의미 변화와 영적 준비가 되었음을 표현하였다.

[사진 4-7] 오브제. 흰 꽃핀

4.4.4 무대장치 및 조명

4장은 Blue 계열 조명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Magenta를 조명색채로 했다. Magenta는 따스하고 행복의 온기를 주는 색으로 상실의 아픔이 소망으로 변화되는 내용으로 구성된 주제 표현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다. LED wash 조명기구로 무대를 넓고 고르게 전체 배경조명을 하므로 무용수의 동작과 움직임에 효과를 더했다. 조명기에 Gobo를 장착하여 LED Spot 조명으로 더 밝은 회복의 에너지를 표현하여 관객들에게 작품의 주제와 의미를 전달하였다. 무용과 조명을 적절히 조화시키므로 무용수의 감정 표현이 잘 보이도록 사용하였다.



[사진 4-8] 조명 5

Ⅴ. 결론

본 연구는 기독교 창작무용, 「바람의 언덕」에 관한 작품 분석이다.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은 누구나 필연적으로 상실을 경험하게 되며, 이로 인한 심리적, 정신적으로 크고 작은 고통을 겪게 된다. 이 작품은 삶에서 그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상실이라면 '상실을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일까?'라는 생각에서 비롯되었으며 주제와 내용을 구상하였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를 통해 상실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상실은 마치 방향을 예측할 수 없는 변화무쌍한 바람을 닮았다는 생각에 인생의 상실 경험을 '바람'이라는 은유적 소재로 표현하였다. 작품을 통해 상실의 경험과 수용 그리고 회복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몸짓의 언어인 무용으로 표현하여 관객들에게 주제를 전달하고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였다.

작품「바람의 언덕」은 삶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대상과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실 경험을 소재로 선택하였다. 현대인들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양한 상실을 경험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회복의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상실 경험은 개인의 인지구조와 내적 이미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실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작품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인생에 찾아온 상실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말하고자 하였다.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은 일반적으로 현실을 부정하려는 태도를 보이며 아픔과 슬픔으로 인한 상실의 고통을 겪는다. 다음 단계로는 억울한 감정이 들면서 다른 대상을 향한 분노로 표출된다. 이러한 내면의 복합적인 감정들은 본능적인 감정들이며 억누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표출될 때 건강한 상실 회복으로 발전할 수 있다. 분노의 감정이 신앙과는 배치되는 것 같지만, 분노를 은혜로 끝나게 하시는 하나님은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거움을 내려놓으라고 하셨다. 바울이 고백처럼 사방이 막혀 있어

도 결코 버린 바 되거나 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몸에 지닌 자라는 믿음 안에 긍정적 시각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본 작품은 인생에 깊은 밤을 지날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임을 전달하고 싶었다. 성경적 상실에 대한 해법으로 집착은 버리고 신앙 안에서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 계신다는 메시지를 의도하였다. 상실의 시간은 외롭고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삶으로부터 격리되어 오롯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며,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인식의 전환을 이루어 가는 시간이라고 의미 부여를 하였다.

현대 사회는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역경, 고난, 상실 등의 심리적, 정신적 충격을 완화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행복의 기본 수준을 높이고 낙관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위한 방법으로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회복탄력성을 훈련하라고 한다. 그리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매일 감사 성향을 훈련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감사하기는 놀라운 힘이 있어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하여 정서 조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기독교는 날마다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훈련이 강화되어 있으니 상실에 대한 회복 능력은 좀 더 단단하고 탁월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작품을 통해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감사로 구하면 하나님의 때에 상실의 아픔을 치유하시며 회복할 것에 대한 확신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본 작품 창작 과정을 통해 연구자의 상실 경험을 되돌아보니 극복과정에 미숙함도 있지만 인생길 모든 여정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느끼는 좋은 시간이었다. 상실로 인하여 연약하고 낙심되었던 상실의 변곡점을 지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도우심을 인하여 기독교 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기독교 무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적 예배의 춤으로 영적 치유의 기능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위로와 회복의 효과뿐만 아니라 사역을 통한 새로운 삶의 의미 변화와 자아실현을 이루는 성장의 기회가 되었다. 이처럼 상실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상실에 대한 유연한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상실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더 단단해지는 삶의 전환점이 되는 의미 있는 상실 수업 시간이라고 생각하였다.

기독교 무용창작 작품「바람의 언덕」을 통해 상실은 삶의 문제 이면에 상실을 통한 영적 전투이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에 개입할 수 있도록 내어 드려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고 승리케 하시는지 표현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회복도록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려고 하였다. 작품 「바람의 언덕」 연구를 통하여 상실의 고통과 회복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하는 계기는 되었으나, 개별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성찰하는 인간 심리를 작품에 접목하다 보니 상실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충분하게 다루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에 연구자는 현 사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보듬고 위로하는 기독교 무용의 문화 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향해 더 다가갈 수 있기를 바라며 선한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창작 작품들이 나오기를 기대하며 제언해 본다. 나아가 기독교 무용인들이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사역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수고와 노력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필요 또한 느낀다. 이 연구가 미력하나마 상실 경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므로 상실의 아픔을 겪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공감과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상실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이 재인식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김시현. (2024). 『회복탄력성』. 서울 : 다른상상

김송이. (2020). “관계 상실 경험이 있는 가족 탄력성이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예인. (2021). “관계 상실 경험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 : 균형적 시간관과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윤식. (2011). 『무대감독』. 서울 : 연극과 인간

김준. (2014). 불안과 기독교 상담: 성경적 인지행동접근. 『성경과 신학』, 71, 85-109.

김주환. (2019). 『회복탄력성』. 서울 : 위즈덤하우스

구진영. 장석진. (2019). 관계상실경험 대학생의 정서인식명확성과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심리적 수용의 매개효과. 『교육문화연구』, 25(2), 315-337.

남태현. (2015). “정서적 지지가 삶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관계성을 통한 진정성의 매개 조절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뉴필로소퍼 편집부. (2024). 『뉴필로소퍼 26호』. 서울 : 바다출판사

박명배. (2024). 『은혜에 꽉 잡힌 인생』. 서울 : 국제제자훈련원

박영애(편). (2023). 『기독교 무용을 위한 실제』. 서울 : ㈜ 내일이비즈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1998). 『성경전서』. 서울 : 대한성서공회

신다예. (2019). “개인적 가치 및 삶의 의미와 우울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경승. (2014). 상실로 인한 슬픔 이해하기. 『복음과 상담』, 22(2), 9-40.

안혜원. 김은수. (2015). 무용음악의 고유성과 역할. 『한국무용교육학회』, 26(4), 113-125.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데이비드 캐슬러 (김소향역). (2014). 『상실수업』.

서울 : 인빅투스
이후주. (2022). “기독 중년 이혼 여성의 관계 상실 경험과 회복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기독교상담 접근”. 총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오오현. (2011). 욥의 상실에 대한 목회 상담적 소고. 『신학논단』, 63, 151-174.
장문영. (2023). “관계상실경험자의 정서인식명확성과 우울의 관계:의미재구성과 인지적 유연성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차오. (2022). “무용 창작시 오브제의 기능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장혜숙. (2018). 『무대의상 디자인』. 서울 : 도서출판 연극과 인간
정희성. (2010). 상실의 관점에서 읽는 욥기-목회상담적 연구. 『한국기독교학회』, 70, 337-359.
조은진. (2016). “삶의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의 관계에서 긍정정서, 인지적 유연성이 매개효과검증”.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선재. (2011). “상실 경험의 의미 재구성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선재. 안현의. (2013). 상실경험의 의미재구성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 『상담학연구』, 14(1) , 323-341.
허준. (2023). 『미디어 조명 디자인』. 경기도 : ㈜ 페스트북

2.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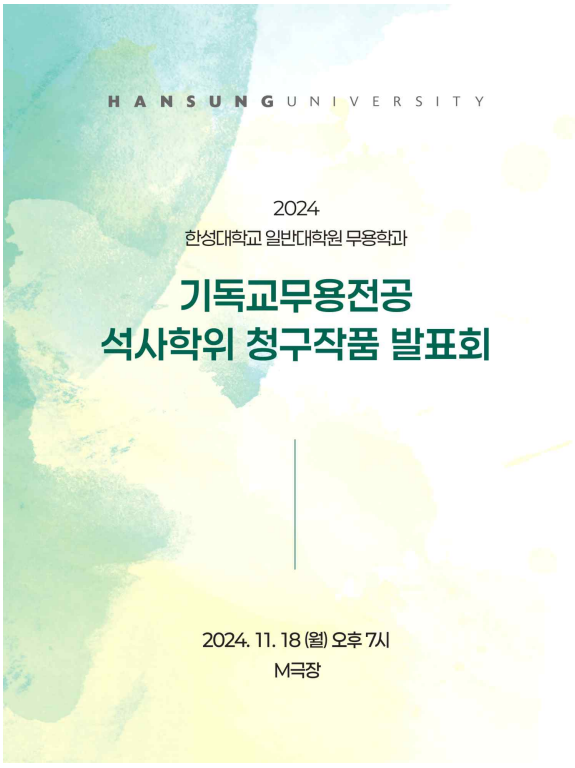
김경호. (2023). “상실의아픔과 대처방법 및 회복단계”. blog. naver.com/goldimage.
정성진. (2023). “꺾이지 않는 마음. 회복탄력성”. www.syu.ac.kr.
크리스찬 라이프. (2024). “성경 속의 색채 상징 하얀색 또는 빛”. cubible@naver.com.

부 록

1. 공연 프로그램 요약

작품명	바람의 언덕 (The Hill of Wind)
발표 일시	2024년 11월 18일 월요일 오후 7시
발표 장소	양재 M 극장
주 최	한성대학교
연출 및 안무	한행선
출 연	한행선, 최슬기
음 악	1장 “Prisoner of Darkness”, “Blame on You” 2장 음성음향 (시편 102편), “Unreachable” 3장 “Secret Wind Chimes” 4장 “바람이 불면” (이권희 작사·작곡)
작품 시간	11분 50초
사 진	임여진
영 상	김찬호

2. 공연 프로그램


HANSUNG UNIVERSITY
2024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무용학과
기독교무용전공
석사학위 청구작품 발표회
2024. 11. 18 (월) 오후 7시
M극장

무용학과 교수
박영애 교수 (무용이론 및 기독교 무용)
김남용 교수 (한국 무용)
박재홍 교수 (발레) 학과장
정석순 교수 (현대 무용)
무대감독
손성현
조명 디자인
강현석
촬영 감독
김찬호
디자인
김아름
주최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무용학과
HSU HANSUNG UNIVERSITY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삼선동2가) 한성대학교
TEL : 02-760-4107 I www.hansung.ac.kr

작품 제목 / **바람의 언덕 (The Hill Of Wind)**

안 무 자 / 한행선

안무 의도 / 인생은 변화무쌍한 바람을 닮았다.
상실의 바람이 삶을 에워싸도 인생의 여정은 완성된다. 영혼이 불안하고 낙심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 도우심을 인하여 찬양하게 된다. 작품을 통해 인생에 찾아온 상실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말하려 한다.

작품 내용 / 상실의 고통으로 인한 슬픔, 분노, 원망의 감정들이 영혼을 잠식시킨다. 지친 영혼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성령의 위로하심을 경험한다. 영적 시야가 열리며 예수님의 사랑이 바람을 타고 마음으로 불어온다.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계셨음을.....

한행선

최슬기

ABSTRACT

A Study on the Christian Creative Dance 「The Hill of Wind」

Han, Hang-Sun

Major in Christian Dance

Dept. of Dance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he Christian creative dance work, 「The Hill of the Wind」, focusing on the theme of loss.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understand the experience of loss in life and examine the process of recovery from a Christian perspective by analyzing the intention, content, structure, and format of the piece. The work originated from the question, 'If loss is an inevitable element of life, what is the right way to cope with it?' Based on this thought, the theme and content were developed. Life presents unpredictable and incomprehensible events, leading to various experiences of loss. These experiences, resembling the unpredictable and ever-changing nature of the wind, are metaphorically expressed through the motif of "wind" in the work.

Modern individuals frequently experience various types of loss in their relationships. Without undergoing a positive recovery process, these

experiences can manifest as factors that negatively impact their lives. The experience of loss influences an individual's cognitive structure and inner image, making one's attitude and perspective toward loss crucial in determining the quality of life. Those who experience loss often initially respond with denial, facing the pain of sorrow. This is followed by emotional changes such as resentment and anger, eventually leading to an attempt at compromise, where loss is accepted. Recovery from loss occurs through this complex emotional journey.

This study aims to convey that the ultimate answer to the losses encountered in life lies in Jesus Christ, as revealed through the work. Loss, as described by the Apostle Paul when passing through the tunnel of suffering, is not a state where we are abandoned or destroyed. Instead, we are children of God who carry the "life of Jesus" within us, holding a positive perspective and pride in our identity. Furthermore, we move beyond the emotions of loss by opening our spiritual eyes and cultivating an attitude that remembers God's goodness and mercy. It is a time to focus wholeheartedly on God, restore our relationship with Him, and undergo a transformation of perception, hoping that God's will is fulfilled in our lives through suffering.

In modern society, various methods are suggested to alleviate and overcome the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hock caused by different types of loss experienced in life. Among these, gratitude training is recommended as a way to strengthen emotional resilience. Practicing gratitude is said to enhance psychological well-being and provide remarkable benefits in emotional regulation. Christians, in particular, confess daily gratitude through faith, making their ability to recover from loss positive and exceptional. While everyone faces periods of loss, adopting a flexible mindset and attitude toward loss and viewing the God of hope with gratitude can turn loss from the end of life into a turning

point for growth in faith.

This study highlights recovery from loss from a Christian perspective through the creative work. Trusting in God's sovereignty and entrusting our problems to Him allows us to witness how God intervenes in situations, addresses loss, and brings victory. God not only gave His only Son, Jesus Christ, but also sent the Holy Spirit, the Advocate, to help us in our weakness. Through a message of hope that brings healing and recovery, the work aims to convey the faithful love of God for us.

The research work 「The Hill of the Wind」 was performed on November 18, 2024, at 7:00 PM at the Yangjae M Theater. The research methodology involved analyzing video footage and photographic materials from the performance. For a deeper understanding of loss, the theoretical background was explored through literature review. The piece is structured into four chapters, illustrating the stages of loss and recovery: the experience of loss, the acceptance of loss, and recovery from loss. The themes of each chapter are as follows: Chapter 1, "The Wind of Loss", expresses the grief and anger associated with the loss that has come into one's life. Chapter 2, "The Wind of Lament", portrays the act of remembering God who is present in suffering, pouring out one's sorrow before Him, and seeking His mercy, as depicted in the lament psalm of Psalm 102. Chapter 3, "The Wind of the Holy Spirit", represents the comforting Holy Spirit who intercedes for us with groanings too deep for words, bearing our weaknesses. Chapter 4, "The Wind of Hope", delivers the message of laying down life's burdens before the Lord, opening the eyes of faith, and experiencing restoration in hope within God. Through this research, a new perspective on loss is presented, offering comfort to those who are enduring the pain of loss.

【Key words】 Christian dance, Loss, recovery from loss, gratitude, stress.